



진리  
평화  
창조

# 외대학보

발행인 안병만  
편집인 임태현  
편집장 김진  
발행처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270-1  
449-791 경기도 용인군 보인면 왕진리 산89  
인쇄인 송재봉

창간 1955년 4월 11일  
등록번호 제 2453호

[주간]

THE OE DAE HAGBO

제46호 1995년 6월 7일 (수)  
1958년 3월 27일 제3종 우편물(가)급인가

1



## 길

이 탄 <한국어교육과 교수>

때까 살아온 길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으므로 그 누구도  
나의 님도 알 수 없을 것이다

마이크를 잡은 사람이 무슨 노래를 부를지라도  
오지 않는 나의 님

나는 항상 마이크에 붙은 먼지처럼 있다가  
바람처럼 떠날 것이다

나는 바람이 순하리여 영혼이 된 것을 믿으며  
살아 왔다 현실 속에서

두 개의 선을 이따금 생각했다

나 스스로 기억하기도 싫은 길, 그러나 결국은 만날 수 밖에 없는 길  
그래서 우리들을 온 길을 가려고 노력한다

언덕 위에서 바라보지만 보이지 않는  
나의 님

지나가는 사람 중에 있기도 하련만  
보일 듯 보일 듯 님의 발자국

그 옛날 정경에 <피발>을 만든  
어리석은 사람을

님은 알고 있을 것이다.

## 1994 회계년도 결산공고

### 학교회계 자금운용계산서

(1994. 3. 1 ~ 1995. 2. 28)

교비회계 및 기성회비 회계		자		출	
수	입	지	출	잔액	잔액
<b>I. 당기자금수입</b> 47,331,889					
<b>1. 납입금</b> (38,600,842)					
(1)입학금 1,484,350					
(2)수업료 23,768,839					
(3)기타납입금 13,347,654					
<b>2. 수수료</b> (1,361,744)					
(1)입학원서대 68,582					
(2)수업료 1,160,105					
(3)등록료 124,501					
(4)사서료 8,556					
<b>3. 연금회계 및 기부금수입</b> (5,280,573)					
(1)학교 운영비 전입금 1,320,092					
(2)장사시설비 전입금 1,670,379					
(3)학교기부금 1,233,648					
(4)학교보조금 1,056,554					
<b>4. 기타교육수입</b> (77,270)					
<b>5. 기타수입</b> (1,477,480)					
(1)세금인자수입 1,263,754					
(2)장사수입 213,726					
<b>6. 교외부채입금</b> (500,000)					
(1)장사차입금 500,000					
<b>7. 대입예정입금</b> (34,000)					
<b>II. 당기자금지출</b> 45,863,334					
<b>1. 원상회계</b> (24,708,616)					
(1)인건비 (3,768,051)					
(2)인건비외 16,940,565					
(3)인건비 - 급여 1,308,157					
(4)인건비 - 급여외 5,632,408					
(5)인건비외 - 급여 11,123					
(6)인건비외 - 급여외 5,621,285					
(7)인건비외 - 급여외 300,247					
(8)인건비외 - 급여외 1,306,057					
(9)인건비외 - 급여외 197,381					
(10)인건비외 - 급여외 (6,604,645)					
(11)인건비외 - 급여외 233,102					
(12)인건비외 - 급여외 453,389					
(13)인건비외 - 급여외 4,988,057					
(14)인건비외 - 급여외 71,103					
(15)인건비외 - 급여외 1,858,848					
(16)인건비외 - 급여외 324,755					
(17)인건비외 - 급여외 1,358,377					
(18)인건비외 - 급여외 (634,574)					
<b>2. 운영수입</b> (1,087,201)					
<b>3. 기부금수입</b> (317,762)					
<b>4. 부채상환지출</b> (29,305)					
(1)장사차입금 29,305					
<b>5. 유류고정자산 매입지출</b> (6,415,644)					
(1)장사차입금 1,351,803					
(2)장사차입금 4,420,200					
(3)장사차입금 643,641					
(4)장사차입금 600,000					
(5)장사차입금 3,937,804					
(6)장사차입금 (280)					
<b>6. 유류고정자산 취득비</b> (729,216)					
(1)장사차입금 680,356					
(2)장사차입금 48,861					
<b>7. 유류고정자산 처분지출</b> (1,481,040)					
(1)장사차입금 1,048,677					
(2)장사차입금 432,363					
<b>8. 유류고정자산 증가</b> 23,045,466					
(3,983,828)					
(1)장사차입금 3,796,091					
(2)장사차입금 21,249,367					
(3)장사차입금 1,048,677					
(4)장사차입금 3,607,137					
(5)장사차입금 2,891,797					
(6)장사차입금 1,999,009					
(7)장사차입금 1,899,788					
(8)장사차입금 (16,584.1)					
<b>9. 유류고정자산 감소</b> 68,908,800					
(3,266,220)					
(1)장사차입금 3,266,220					
<b>2. 유류부채증가</b> (4,738,454)					
(1)장사차입금 1,374,362					
(2)장사차입금 1,490,454					
(3)장사차입금 7,499,021					
(4)장사차입금 116,208,567					
(5)장사차입금 2,173,938					
(6)장사차입금 (13,572,237)					
<b>합계 (I + II)</b> 68,908,800					

### 연결대차대조표

(1995. 2. 28 현재)

법인회계 및 학교비회계				부				채			
구분	법인	학교	계	구분	법인	학교	계				
1. 유류자산	504,694	17,663,031	18,167,725	1. 유류부채	527,616	17,982,812	18,510,428				
1. 유류자산	29,975	16,169,841	16,199,816	1. 유류부채	3,336	146,102	149,438				
2. 유류자산	390,309	794,307	1,184,616	2. 유류부채	24,280	17,499,021	17,523,301				
3. 유류자산	0	696,003	696,003	3. 유류부채	500,000	338,689	838,689				
4. 유류자산	0	280	280	4. 유류부채	1,273,640	3,549,572	4,823,212				
5. 유류자산	84,410	0	84,410	5. 유류부채	0	3,332,484	3,332,484				
<b>I. 유류자산</b> 48,388,567	3,737,195	52,123,762	52,123,762	6. 유류부채	0	203,788	203,788				
1. 유류자산	60,511	29,500	90,011	7. 유류부채	1,273,640	1,801,256	3,074,896				
2. 유류자산	2,196,500	0	2,196,500	8. 유류부채	0	13,300	13,300				
3. 유류자산	580	580	1,160	9. 유류부채	0	21,532,384	23,333,640				
4. 유류자산	45,350,544	0	45,350,544	10. 유류부채	52,230,656	60,881,132	113,111,788				
5. 유류자산	0	2,091,444	2,091,444	11. 유류부채	4,311,026	0	4,311,026				
6. 유류자산	778,432	1,616,251	2,394,683	12. 유류부채	47,919,630	15,530,588	63,450,218				
<b>II. 유류자산</b> 5,949,058	64,512,192	70,461,250	70,461,250	13. 유류부채	0	45,350,544	45,350,544				
1. 유류자산	2,069,147	5,351,883	7,421,030	14. 유류부채	808,027	3,707,695	4,515,722				
2. 유류자산	3,852,474	84,913,969	88,766,443	15. 유류부채	778,432	1,616,251	2,394,683				
3. 유류자산	0	5,477,092	5,477,092	16. 유류부채	29,305	0	29,305				
4. 유류자산	0	6,045,988	6,045,988	17. 유류부채	0	2,091,444	2,091,444				
5. 유류자산	22,388	2,686,792	2,712,180	18. 유류부채	380	▲208,793	▲208,413				
6. 유류자산	0	763,815	763,815	19. 유류부채	412	▲1,677,348	▲1,676,936				
7. 유류자산	0	4,502,458	4,502,458	20. 유류부채	312	▲1,677,348	▲1,676,936				
8. 유류자산	0	4,513,885	4,513,885	21. 유류부채	432	▲1,677,348	▲1,676,936				
9. 유류자산	3,200	167,410	170,610	22. 유류부채	▲32	1,468,555	1,468,523				
10. 유류자산	1,639	85,900	87,539	23. 유류부채	53,039,963	64,389,034	117,419,097				
<b>자산총계</b> 54,840,319	85,912,418	140,752,737	140,752,737	<b>부채총계</b> 54,840,319	85,912,418	140,752,737	140,752,737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1995. 5.

학교법인동원육영회 이사장 이 숙 경  
한국 외국어 대학교 총 장 안 병 만

<감사의견>

학교법인 동원육영회의 1994회계년도 결산을 감사한 바 학교법인 동원육영회의 재무상태와 회계회계(기성회계 포함)의 자금운용 내용이 기업회계기준과 사회기반 재무회계규칙 및 총회규칙을 준용하여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감사 이 종 익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감사 서 정 의

### 사설

### 진정한 자기철학

민주주의가 발달했다고 일컬어지는 영국·프랑스 등 유럽 지역 관련 외신보도를 보면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현실과 상이한 것을 쉽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외신보도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정치현실일 것이다.

한 예로 정권을 잡았다고 이번 선거에서 패배한 프랑스의 사회당이나 영국의 노동당 등이 하나의 정치체로서 존재하고 있는 현실을 들고 있다. 이 정당들은 다름아니 마르크스 사상에 뿌리를 둔 정당이다. 이들은 자본주의의 발전이 민주주의가 아닌 노동자·농민중심의 인권실현을 중요시한다는 데 공평점을 갖는다. 이곳에서는 진보와 보수가 정당으로 구분될 수 있다. 보수와 진보는 서로를 비판하고 국민들은 타당한 쪽을 투표하는 행사로써 인정한다. 자본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타도를 외치는 사람들이 정치인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마르크스 사상을 불문하고 용공이라고 해도 하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과 명확히 대비된다.

혹자는 이러한 정치현실이 존재할 수 있는 근본 원인을 '비민주적인 태도 이후 연대' 때문이라 한다.

근대 민주주의의 태동 이후 연대로 들어오기 후 차례의 세 계대를 거치면서 대부분의 정치진권국이라는 나라들은 변화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보수세력'이 사회를 주도해왔다. 이들은 엄격한 자기철학을 갖고 있다. 자기의 사상이 보수라면 왜 자신은 보수를 지향하고 그것이 왜 옳은지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다고 한다. 그 이유와 방법이 뚜렷한 것이다. 그렇게 때문에 나와 생각이 다른 진보세력을 인정하고 비판을 용인하는 풍토가 조성됐다. 그 과정에서 오늘날의 발전된 사회가 나왔다는 글을 본 기억이 있다.

자기철학에 바탕한 이성적 확산, 자신에 대한 비판을 인정하는 모습이 있는 사회인가 진보와 보수가 어울려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과연 독립은 어떤가? 정치체제의 일은 처치하더라도 우리가 물었다는 의미부터 돌아보자. 지난주부터 양캠프 선출후보자들이 9대 대선 결산내려서 공개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고 한다. 이들은 학생들 학생들의 대표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며 불참상임 대학당국의 협상 태도를 지적하고 있다.

지난 주 본문에는 대한당국의 답변서 내용이 보도된 적이 있다. "제단 예결산은 학생회에 공개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것이 심지어 학부들로 구성된 "기상화 회의"를 공개 분가" 등 대학운영의 전반적 사안에 있어 학생들의 알고자 하는 요구나 참여의 의지 등을 대학당국은 묵살하고 있다.

우리는 흔히 한국사회를 '철학이 없는 사회'라고 말한다.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모두 진정한 자기철학이 없음을 기인한다. 자신의 정면나 양면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비판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것은 곧 비판세력에 대한 압력과 탄압으로 절절해왔다. 해방이후 이승만정권이 그랬고, 박정희가 그랬고, 5·16공도 그랬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지금 상황은 별로 바뀌지 않았다. 한국사회의 역사는 곧 토론의 퇴화(退化)였다. 그러한 현실은 대학사회도 예외가 아니다. 해마다 끊이지 않고 벌어지는 대한당과 학생들간의 마찰, 대학사회에서의 진보와 보수를 규정하기 앞서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나는가를 함께 알아야 할 것이다.

진정한 자기철학, 사상이 없는 것은 곧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낳는다. 그러나 독재는 항상 오게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넓은 역사와 또한 흐름은 정면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과연 대한당국은 자기철학이 있는가? 비판세력에 대해 냉각하고 자신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아파해야 할 외대발전의 결판점 중 하나임을 틀림없다.

# 흡산의 소리

외대인들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까.  
 진실된 삶, 함께 하는 삶을 소망하는 외대인들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여기에 듣고 싶습니까.  
 원고지 2~7면에 그 목소리를 담아 매주 금요일 오후 5시까지 본보 학생기자실로 가지고 오십시오.  
 채택된 원고에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외대학보에서는 컴퓨터통신(하이텔·천리안·나우넷)을 통해 원고를 받습니다.  
 ID는 모두 'OEDAE'입니다. 원고에 이름과 단체·과·학년도 같이 밝혀 주십시오.

### 지난 외대학보 645호를 읽고

## 쓰레기 매립, 학교측 책임

지난주 외대학보 645호 쓰레기 기사를 보고 몇가지 짚고자 한다. 지금까지 흡산 공평하고 외가 낙인 부른다는 정산대외비 쓰레기 문제이다.

그동안 언제나 연기가 피어 올랐고 그래서 아름다운 학교의 경관을 말썸쳤다. 정산대외비는 학교와 기숙사를 가는 길목에 있다.

그런 중요한 장소에 쓰레기 타는 연기가 나고 역겨운 냄새까지 날게 하는 것이다. 연기가 나는 것을 학생들은 잘 볼 수 있겠지만 역겨운 냄새가 나는 것은 모르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산대외비 뒤의 쓰레기 소각장(먼지 소각장치) 그 방을 마구 파놓고 쓰레기를 넣어 태우는 꼴이다.

또한 주변에는 이리저리 흙이 패져서 있어 아저장 같은 스산한 냄새가 주욱 풍기며, 여름이 되면 개가 배설로 도처에 있을 수 없고 지저분한 모양으로 여기저기 쓰레기들이 널려 있다. 과연 이것이 온전한 것인지 묻고 싶다.

지난 기사에서는 쓰레기 대행업체가 쓰레기 처리를 꺼내다다하고 했다는 사실도 언급되었는데, 이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어떤 회사

가 돈을 주고 처리한다든 마다 할까가 의문이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에서는 인문사회대위에 소각장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학교입구와 학교구사의 장소만 바뀌었지 근본적인 쓰레기 문제의 해결은 될 수가 없다.

하루에 나오는 쓰레기가 상당할 텐데 그 많은 쓰레기를 그날매 매립한다는 연평균이 아름다운 왕산이 쓰레기로 덮이는 것은 아닐까?

중요한 것은 쓰레기의 매립은 분량 환경오염의 문제이기도 하고 학교측의 도덕적 책임이기도 할 것이다.

매일 학교를 들어올 때마다 보이는 해안 연기도 지나갈 때마에 학교를 정그려 가는 역겨운 이물질들은 우리 외대인들이 겪어야 하는 불편함이기에 파피루느 끼는 고통으로 다가왔다.

또한 그것은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학교측의 무책임한 회피가 일어난다면 잘못된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더이상 하얀 연기로 왕산의 그렸다는 생각이 훼손되지 않고 역겨운 악취로 코를 찌르는 것을 보면서 과연 달린 것은 무엇일까 라는 의문이 든다.

윤영남(사학·경영정보 2)



화려한 의출 이기영(동양·일본어 2)

**전국 가야재꾼** - 서울시 교사 -

뻔뻔한, 장원식 현대가나 되리라  
 - 현대기 정수 -

대학내 계란판매 금지  
 - 정영석 -

정원식! 하얀 댕고르는 것  
 1. 정교조 탄압  
 2. H대에서의 계란 시간  
 3. 권력 지향적인 YES맨  
 -95. E.D-

정원식이 아닙니다. 정원식입니다! (계란·발기부) -  
 -막강 사대 주범정-  
 정 전총리님! 우리는 전 총리님을 사랑해요!  
 -외대 맞사자부 일동-

이번엔 어느 학교로 갈꼬나  
 -재적생-

정원식! 하얀 댕고르는 것  
 자! 달걀 사-러 발기부도!  
 -취업 언젠 졸업생-

정원식! 하얀 댕고르는 것  
 그대 가는 길에 산토끼가 몇  
 한달밤 가득 안아드리리라!  
 -인도동아-

## 민주노총 건설 방해 의도

며칠 전 김영삼 대통령은 한국통신 노동자들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오히려 임금교섭 중인 노동조합(노조)에 국가 정책 기도를 운운하며 국가 안보를 차원에서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대통령의 발언은 노사 관계를 극도로 경색시켰고 한국통신 노동자들의 전격적인 결속사태와 노동조합 패배는 결과로 가져왔다.

공유적인 통신시장 개방 반대, 그리고 긴급 헌원인상 요구가 국가 정책 활동일 수는 없다. 이 나라에서 자국의 통신 시장을 지키기 위한 노조 활동을 국가 정책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 공익도 노동자도 사익인데 무슨 면목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까? 통신 서비스 말고도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노동자의 요구를 대화로써 해결하려 하지 않고 무력진압과 구속으로 해결하려는 김영삼 대통령이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대통령의 자격이 있는 지 의심스럽다.

김영석(사학·푸마이어 4)

## 용인 식당문제 주인의식 필요

지난 주 5월 23일(화) '용인 캠퍼스 복지 문제'에 대해 '라는 내용이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 적어본다.

학교내의 식당을 비롯한 모든 매점은 일정한 자기구현의 해결 시점이 아니라, 왕산의 6호 학생 스스로가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이다. 식당문제 개선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학생들의 식기 및 식판과 관련된 사항의 결정을 위한 운영 관리를 통해 바뀌어 줄 수 있도록 임원이 계속 가고 있으므로 차차 교체될 것이다. 앞으로 식당문제에 관한 책임자들은 사실상 장기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 이유는 생활 이사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처음에는 생활비 등으로 교체 결정했다. 그러나 학교에서 식당의 기본보급의 품의 값이 상승에 대한 보편의 차이를 학교측의 비용으로 교체된 것이다. 즉 식당 식기의 최

초 구입은 고정 자산이므로 학교 예산에서 구입하고 운영에 따른 감가상각은 운영자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기숙사 식당과 야구장과 식당의 식기 및 식판의 교체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임대하고 있는 업체에 임대료에 관한 운영 관리를 통해 바뀌어 줄 수 있도록 임원이 계속 가고 있으므로 차차 교체될 것이다. 앞으로 식당문제에 관한 책임자들은 사실상 장기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 이유는 생활 이사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처음에는 생활비 등으로 교체 결정했다. 그러나 학교에서 식당의 기본보급의 품의 값이 상승에 대한 보편의 차이를 학교측의 비용으로 교체된 것이다. 즉 식당 식기의 최

다르구나 우리 학교 식당은 화

**SBS/서울방송**

**“당신의 젊음을 생동하는 SBS와 함께”**

**SBS**

**신용철** 서울대 법학과 졸업  
 보도국 편집부 기자  
 '출발! 모닝와이드', MC

**한수진**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졸업  
 보도국 문화기획부 기자  
 'SBS 8 뉴스', 앵커

**손석기** 중앙대 언론학과 졸업  
 중앙대 언론문화부장  
 SBS뉴스 앵커  
 스포츠 캐스터

**이장수** 인하대 토목공학과 졸업  
 TV매력 PD  
 '95스프링시어니, 연출  
 '꽃을 피는 사람들', 프로듀서  
 한국국제협력회  
 학원장 수장

**유형관** 한양대 전자공학과 졸업  
 기숙사 TV기동부 TD  
 '7시뉴스', 기획감독  
 '행사 5', 기획감독

**건강한 방송 건강한 사회를 방송지므로 새로운 방송문화 정착에 앞장서 온 SBS는 21세기를 함께 어갈 젊은 인재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사중 최초로 신입사원 전원에 대해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 SBS는 진취정신을 과감히 변경하여 영어시험을 TOEFL/TOEFL 점수제출로 대체하고 종합고양시험을 실시함으로써 새로운 방송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재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창조적인 사고와 도전적인 열정으로 새시대를 SBS와 함께 어갈 방송지망생들을 위하여 주요 채용계정을 사진에 알리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지망생들은 사진전달서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BS와 함께 21세기로**

부	문	인	원	모	집	정	선	정	차	별	기
기	자	00명									
P	D	00명									
통	계	00명									
방송	기	00명									
방송	기	00명									
카	레	00명									
아	나	00명									

1. 영어시험은 TOEIC 또는 TOEFL 성적증명서 제출로 대체 (총시험 기준 2년 이내)  
 2. 최종합격에 대해서는 당사 주관으로 TOEIC시험을 필기시험형태로 실시  
 3. 최종합격은 공학, 자연과학을 중심으로 출제  
 4. 내용은 해당부서 면접담당자에 의해 별도 실시  
 5. 면접일: 이사내를 제외한 타직종도 필기시험일과 동일한 시험을 실시할 수 있음

**모집대상**  
 9월 초순

**시원일 및 개최**  
 개최시 및 장소: 1995. 7. 4 (화) 10:00 - SBS 동문동 공개홀 (전화 02-620-1600)  
 참 석 대 상: SBS 입사지원서 전원 (제한없음)

**참 고 사**  
 1. 구체적인 모집요강 등은 추후 공개됩니다 SBS방송을 통해 공고예정  
 2. 제2차에(일본어, 독일어, 불어, 중국어) 필기 후 추대  
 3. 면접: 필기합격후 추대(일본어/독일어/불어 또는 JPT시험 85점 이상)  
 4. 면접: 종합고양시험 2차(영어)  
 5. 불 어: 프랑스어 부활 시험(프랑스어 프랑세즈 데 델프 A5이상)  
 6. 중국어: 중국어 시험 한자능력검정시험(HSK)중급이상  
 7. 불어: SBS인사부 (전화 02-308-1121-9)

**최종합격자 전원 2주간 미주 및 구주지역 해외연수**

□ 양캠프 총학생회장 단식 돌입 배경

# 양캠프 총학생회장, 단식 농성

## 총학생회측 학생처 예산 공개 주장

지난 5월 29일(월)부터 양캠프 총학생회장이 대학당국의 '이년 결산세부집행내역서 공개'와 '교육환경 개선 요구안 관련', '부총장급 이상의 대학장구 마련'을 요구하며 총장실앞에서 무기한 단식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양캠프 총학생회는 대학당국이 5월 30일(수)에 보낸 94년 결

산 중에서도 학생지도비·행사비 조비·취업보도관련 경비·통학버스 운행보조 등 10개 항목의 세부내역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학생지도비와 관련, 용인캠프스 부총학생회장 임성은(동학)이 4군은 "학생처장과 과장이 지도비를 학생처장 '전결'이라 하여 일체로 지출하고 있다"라고 주장한다.

또한 총학생회는 등록금투쟁이 대학발전투쟁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총학생회가 대학당국에게 발송한 교육재정·교육환경·교육내용 등의 내용을 골자하듯 한 교육재정을 다시 대학당국에 제기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총학생회의 입장에 이어 양캠프스 총학생회장 정석민(동학·미인)이 4군은 "총학생회의 요구안에 대해

대학당국이 내놓은 답변 내용이 너무나 불성실하다"라며 "대학총학생회장이 학생지도비에 대한 급박한 상황에서 대학당국이 학교 발전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총학생회의 입장에 대해 학생처 관계자는 "5월 측계가 끝나마자 아무런 사전 통고나 대화도 없이 일방적인 주장만

을 내세우며 구태연한 단식투쟁에 들어가는 것은 비이성적인 행위이며 학생지도비에 대한 일종의 불신은 아무런 타당성이 없는 불합리한 주장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양캠프스 총학생회는 오늘(7일) 캠퍼스별로 '단식투쟁보고 및 학생처 책입' 피켓을 위한 외대인 결의대회(가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 삼한기업 학교건물 부실공사 의혹

## 도급순위 30위권 건설회사 성실성에 문제

본교의 건물공사를 19년간 도맡아 해 온 삼한기업이 학교건물의 공사를 부실하게 해 온 의혹을 사고 있다.

이것은 삼한기업이 해낸 용인캠퍼스 여학관을 시작으로 용인캠퍼스 건물 9개를 모두 건설하고 현재 제2차목적 교수연구동의 공사를 맡기까지 최근 19년간이나 본교의 공사를 독점해온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에 외대발전추진위원회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제2차목적 교수연구동 건설현장 및 캠퍼스내 곳곳에 '입찰과정을 공개하라'는 등의 대자보를 붙이고 용인캠퍼스 9개 건물을 모두 삼한기업에 맡긴 이유와 현재 진행중인 제2차목적 교수연구동이 어떤 과정을 거쳐 공사를 맡았는지를 밝히라고 요구

해 주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예로 최근 건립된 용인캠퍼스 신강의동은 강의실의 구조, 소음 등 잘못된 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균열이 일어나고 지면과 건물사이에 틈이 생기는 등 부실공사의 의혹마저 있고 있다. 이와 관련, 반박하자면 '법학 4군은 "학생처 사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삼한'임을 대학당국이 고집하는 이유가 편지를 빌려야 한다'라며 "정당한 입찰을 거쳤다면 입찰과정을 공개하면 의혹은 쉽게 풀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2차 발전 사무과장 임영철씨는 "삼한기업은 모든 입찰에서 최저가를 쓴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입찰은 교직원 및 학생이 모두 참석한 자재에서 이뤄졌으므로 조차된 점도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의혹을 제기한 것은 1994년 11월 15일이다. 당시 용인캠퍼스 신강의동 10층 강의실 공사 도중, 10층 바닥이 균열이 일어나고 지면과 건물사이에 틈이 생기는 등 부실공사의 의혹마저 있고 있다. 이와 관련, 반박하자면 '법학 4군은 "학생처 사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삼한'임을 대학당국이 고집하는 이유가 편지를 빌려야 한다'라며 "정당한 입찰을 거쳤다면 입찰과정을 공개하면 의혹은 쉽게 풀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 용인, 총학 요구안에 대한 답변 전달

## 총학 학교측 답변서에 문제제기

대학당국은 지난 5월 24일(화) 용인캠퍼스 총학생회가 보낸 대학발전투쟁 관련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총학생회에 전달했다. 이와 관련하여 총학생회측이 지적하고 나선 몇가지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총학생회는 '안과에 대해 수감신장자가 8명 이상일 때 분반하자'는 요구를 질의서를 통해 내었다. 답변서에는 강의실 사정 등으로 이렇다는 입장이 나왔으나, 무분별로 정공강과 연강 폐지의 경우 대학당국은 "대학기다 학과를 통해 확정한 담당교수 또는 강의시간을 임의로 변경하는 사례가 없도록 강조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경우 대학당국은 총학생회가 무엇을 요구했는지도 모르고 답변했다는 얘기가 된다. 3시간을 연이어 수업하는 것은 수업의 능률과 교수·학생들의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측면에서 학생들의 입장을 사했다. 3시간 연속 강의를 1시간 단위로 분리하여 수업을 하게 해달라는 요구에 강의 시간·담당교수는 되도록 바뀌지 않게 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던진

것이아. 세번째로 교과과정 다양화에 대해 대학당국은 '15일(월)까지 1차적으로 이에 대한 각 단과대학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토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용인캠퍼스 부총학생회장 임성은(동학·아람)이 4군은 "그러나 단과대학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토의할 계획이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학당국은 "교과과정의 다양화" "교과과정의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개선히기 위해 '교과과정 개편 연구위원회'가 구성돼 연구 중에 있음(95.5.15까지 1차적으로 각 단과대학 의견을 종합해 토의에 임할 계획. 다만 다양화 방안도 강구해야 하지만 이로 인해 폐강과목이 다수 발생할 경우 불이익을 당하는 학생들이 나올 수도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 입학금에 입학비의 대체 수 입이 아닌 납입금 수입입  
= 순환교수제에 대한 폐쇄 극복 방안 마련(주 30시간 근무 및 정진적인 순환제 폐지)  
= 용인캠퍼스의 공중화 방지를 위한 대학발전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중에 있음  
= 교과과정의 다양화  
= 교과과정의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개선히기 위해 '교과과정 개편 연구위원회'가 구성돼 연구 중에 있음(95.5.15까지 1차적으로 각 단과대학 의견을 종합해 토의에 임할 계획. 다만 다양화 방안도 강구해야 하지만 이로 인해 폐강과목이 다수 발생할 경우 불이익을 당하는 학생들이 나올 수도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 명수당 안의 무대 마련  
= 명수당 안 노천광장을 개·보수하여 야외무대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대시설(지붕포함)을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중임. 관련 전문과, 교직원,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의 전체조성과 조화하는 사실이 되도록 하겠음.  
= 용인캠퍼스 전일교수제 추진

= 전일교수제 추진은 현재 본 대학교의 양캠퍼스 단일교수제 제하에서 수업이 진행한다는 장점을 희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학교 차원에서 심도있게 논의해야 할 것임.  
= 용인 신강의동 및 건물 열방열 실험 2층 방열할 설치  
= 관계부처가 소용문내 대책을 검토중임  
= 후생복지관 내내 차공  
= 96년 4월 원공정  
= 시간 연장운영은 경영정책, 영사실 의사 극장식 교체  
= 시간 연장운영은 경영정책으로 검토중임  
= 조정시설 개선(이외 조형물, 벤치, 야외독서 공간, 분수 설치)  
= 야외조형물, 건자 등 취미 조형에 어울리는 시설을 보완은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임. 학생들의 건의 사항도 적극 수용하여 환경 개선에 임할 것임.  
= 기숙사 전회 회선 증설  
= 모현에서 전회회선은 7회선을 증설하여 총 15회선이 가동하도록 추진중임

(곽근영 기자)  
**알림**  
646호로 95년도 1학기 신문 을 출간합니다.

대학당국은 "이와에도 총장과 부총장이 직접 학생들에게 약속한 사안인 각과 컴퓨터 구비와 시장직업 연장운영에 대해 학생처는 아무런 실행계획도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대학당국의 협상태도와 관련된 양 캠퍼스 총학생회측에서는 지난 29일(월)자로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다음은 서울캠퍼스와 중북지역 많은 용인캠퍼스만의 요구인과 이에 대한 당국의 답변을 정리한 것이다.  
- 신입생 입학금(5만원) 환불

대학당국은 "이와에도 총장과 부총장이 직접 학생들에게 약속한 사안인 각과 컴퓨터 구비와 시장직업 연장운영에 대해 학생처는 아무런 실행계획도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대학당국의 협상태도와 관련된 양 캠퍼스 총학생회측에서는 지난 29일(월)자로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다음은 서울캠퍼스와 중북지역 많은 용인캠퍼스만의 요구인과 이에 대한 당국의 답변을 정리한 것이다.  
- 신입생 입학금(5만원) 환불

대학당국은 "이와에도 총장과 부총장이 직접 학생들에게 약속한 사안인 각과 컴퓨터 구비와 시장직업 연장운영에 대해 학생처는 아무런 실행계획도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대학당국의 협상태도와 관련된 양 캠퍼스 총학생회측에서는 지난 29일(월)자로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다음은 서울캠퍼스와 중북지역 많은 용인캠퍼스만의 요구인과 이에 대한 당국의 답변을 정리한 것이다.  
- 신입생 입학금(5만원) 환불

대학당국은 "이와에도 총장과 부총장이 직접 학생들에게 약속한 사안인 각과 컴퓨터 구비와 시장직업 연장운영에 대해 학생처는 아무런 실행계획도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대학당국의 협상태도와 관련된 양 캠퍼스 총학생회측에서는 지난 29일(월)자로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다음은 서울캠퍼스와 중북지역 많은 용인캠퍼스만의 요구인과 이에 대한 당국의 답변을 정리한 것이다.  
- 신입생 입학금(5만원) 환불

### □ 열린 총장실의 한 획기를 돌아보다...

# 학생, 총장 함께 학교발전 고민하는 장

열린 총장실에서 제기된 의견으로 실용영어부가 생기고 학생 ID카드도 대체되는(96년 예정) 등 열린 총장실이 학생들의 학교발전에 대한 의견을 총장에게 전하는 자리가 되고 있다. 그러나 홍보와 체계적 관리 부족 등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다.

"대학에 대한 권위주의를 추방하고 학생들과 대학당국간 에 밀접한 소통을 시도한 열린 총장실을 계획했다"는 양명민총장은 지난해 취임 후부터 관리부서 '열린 총장실'을 실시했다. 그러나 작년 홍보부족과 학생들의 무관심이 지적된 바 있다. "그런데 이 대학에서 각 단과대학과 타 대학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낮았으며 학생들이 열린 총장실에서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고 아무런 열의도 없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올해에는 본교에 고정된 학생 기고 각 일간지와 타 대학들에서도 관심을 가지면서 '열린 총장실'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 가고 있으며 여기에 힘입어 학생들의 제도와 직접 연계되어지면서 '열린 총장실'은 학교에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답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그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올해 들어서서 수요일 3시에

시행기간 및 특수상황을 제외하고 매 주 실시(96년) 때와 더불어 학생 20여명과 교직원 등 열한 총장실이 학생들의 학교발전과 관련된 의견을 총장에게 전하는 자리가 되고 있다. 그러나 홍보와 체계적 관리 부족 등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다.

"대학에 대한 권위주의를 추방하고 학생들과 대학당국간 에 밀접한 소통을 시도한 열린 총장실을 계획했다"는 양명민총장은 지난해 취임 후부터 관리부서 '열린 총장실'을 실시했다. 그러나 작년 홍보부족과 학생들의 무관심이 지적된 바 있다. "그런데 이 대학에서 각 단과대학과 타 대학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낮았으며 학생들이 열린 총장실에서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고 아무런 열의도 없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올해에는 본교에 고정된 학생 기고 각 일간지와 타 대학들에서도 관심을 가지면서 '열린 총장실'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 가고 있으며 여기에 힘입어 학생들의 제도와 직접 연계되어지면서 '열린 총장실'은 학교에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답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그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올해 들어서서 수요일 3시에

시행기간 및 특수상황을 제외하고 매 주 실시(96년) 때와 더불어 학생 20여명과 교직원 등 열한 총장실이 학생들의 학교발전과 관련된 의견을 총장에게 전하는 자리가 되고 있다. 그러나 홍보와 체계적 관리 부족 등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다.

"대학에 대한 권위주의를 추방하고 학생들과 대학당국간 에 밀접한 소통을 시도한 열린 총장실을 계획했다"는 양명민총장은 지난해 취임 후부터 관리부서 '열린 총장실'을 실시했다. 그러나 작년 홍보부족과 학생들의 무관심이 지적된 바 있다. "그런데 이 대학에서 각 단과대학과 타 대학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낮았으며 학생들이 열린 총장실에서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고 아무런 열의도 없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올해에는 본교에 고정된 학생 기고 각 일간지와 타 대학들에서도 관심을 가지면서 '열린 총장실'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 가고 있으며 여기에 힘입어 학생들의 제도와 직접 연계되어지면서 '열린 총장실'은 학교에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답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그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올해 들어서서 수요일 3시에

시행기간 및 특수상황을 제외하고 매 주 실시(96년) 때와 더불어 학생 20여명과 교직원 등 열한 총장실이 학생들의 학교발전과 관련된 의견을 총장에게 전하는 자리가 되고 있다. 그러나 홍보와 체계적 관리 부족 등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다.

"대학에 대한 권위주의를 추방하고 학생들과 대학당국간 에 밀접한 소통을 시도한 열린 총장실을 계획했다"는 양명민총장은 지난해 취임 후부터 관리부서 '열린 총장실'을 실시했다. 그러나 작년 홍보부족과 학생들의 무관심이 지적된 바 있다. "그런데 이 대학에서 각 단과대학과 타 대학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낮았으며 학생들이 열린 총장실에서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고 아무런 열의도 없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올해에는 본교에 고정된 학생 기고 각 일간지와 타 대학들에서도 관심을 가지면서 '열린 총장실'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 가고 있으며 여기에 힘입어 학생들의 제도와 직접 연계되어지면서 '열린 총장실'은 학교에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답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그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올해 들어서서 수요일 3시에



HALA
2000년대 세계적기업으로의 성장
MANDO

### 정상을 향한 발진-「만도」

국내 1위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제, 세계정상을 향한 기술개발의지를 펼쳐갑니다.

지구촌을 누리고 있는 국산자동차의 명성과 성공 위에는 만도인의 숨은 노력과 정성도전 의지가 숨어있습니다.  
앞으로도 만도기계는 끊임없는 개혁정신으로 첨단기술세계에 도전하며, 우리나라의 우수성을 세계 곳곳에 알리고 있습니다.

## 만도기계(주)

민/족/사/적/대/전/한/기/와/우/리/의/과/제/

# 여전만 조성되면 남북관계 급진전 '확실'

## 국보법 철폐·조문파동 사과 등 화해노력 선행돼야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민족사적 대전환기, 통일전선이라는 의미를 정확히 알아볼 수 있고 이러한 시대사적, 민족사적 대전환기에 우리가 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학보가 기록의 상으로 원래 기획했던 마지막 기획을 절여 소개해 드립니다.

(편집자 주)

94년이 통일문제의 전환기가 될 것은 분명하다. 탈냉전의 상황에 맞게 분단을 강제한 것은 그동안의 냉전질서가 어떤 방식으로든 지 변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반드시 단기간에 남북관계를 급진시킬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남북관계도 주변정세에 따라 변화할 것은 분명하지만 남북 당사자의 의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변정세가 남북관계의 변화로 기계적으로 이어진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남북 당국자 사이에 충분한 신뢰가 마련되지 않으면 주변정세의 변화에 비해 남북관계의 변화속도는 훨씬 느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조문파동과 남북대화의 중단

현재 남북대화가 중단되고 있는 것은 남북한이 남북대화의 필요성, 자제를 부인하고 있다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남북 정부는 조문파동 등의 정면적이지 못한 비공개적

급진적 상황에서 정상회담 개최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김영삼 사망 이후에 남북 정부와 대화를 기피하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도 당국자회담을 비롯한 전민족적인 통일대화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북한은 무역자유화를 표방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장기적으로 세계 자본주의의 영향에 적극 참여하면서 우리의 사회주의 체제 유지와 민족자립경제 건설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국가주주의 취입한 이후에 북한 사회의 사회주의 체제의 목표와 통일정책을 발표하고 그 과정에서 남북 정상회담 실현은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당국자 대화의 발전은 북한의 국가주주의 취입 이후에나 구체적인 전망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북정상회담 자체가 통일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한 것이므로 정상회담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느냐의 여부이다. 그러나 남북 정부가 조문파동에 대한 최소한의 해명을 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정상회담 등 남북관계 개선을 포기할 개연성이 높지 않다. 그리고 남북 정부의 정치는 내리 태에 국가보안법 폐기가 조문파동과 사과 등 북한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 점이 남북관계 경색의 첫번째 원

인인 것이다.

### 김영삼 정부의 통일정책

김영삼 정부는 집권 중반기를 맞이하여 민심정안을 수습하고 흥선체제로 돌입하기 위해서 국제화·세계화 논리 이외에 통일논리를 내세울 가능성이 다분하다. 특히 통일문제는 지지세 이후 집권중반기에 권력안정을 보장하는 확실한 카드로 사용될 수 있으며 남북정상회담이 추진된다면 통일카드는 더욱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다. 그 카드는 통일에 대한 정치적 행위체로서 집권세력이 가지는 공감을 최대한 살려 민간자원의 개입을 제한하고 당국자 주도노선을 구사하는 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도 김영삼 대통령이 제안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데 이러한 북한의 태도 역시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은 지난 94년 8월 15일 '3단계 3원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하였다. 특히 94년 8월 24일에는 북이 3단계 회담에서 북한과 미국이 일괄타결에 가까운 협의를 본 직후 이므로 많은 사람들이 김영삼 대통령의 전방적인 통일정책을 기대하고 있던 시점이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초반기에 발표한 3단계 3원칙 통일방안과 몇가지 점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발표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자유민주주의를 기조로 한 3단계 3원칙의 통일방안이다. 3단계는 기존의 3단계 3원칙의 통일방안과 차이가 있다. 1단계는 화해협력의 단계, 2단계는 남북연합, 3단계는 1민족 1국가의 통일단계이다. 3단계 3원칙 통일방안과 가장 큰 차이는 3원칙을 삭제하고 3원칙으로 대체했다는 것이다. 3원칙은 국민적 합의, 공존공영, 민족독립이다.

3원칙의 논리는 김영삼대통령이 취임에서 어느 통령국보다도 민족이 우선한다고 밝힌 데에서 잘 나타났다. 3원칙은 통일정책의 핵심이념인 민족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이념도 노인의 송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3원칙 대신으로 대체된 3원칙은 자유·평화·민족대단결을 통일 원칙으로 합의하지 않고 있다. 이번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제시된 3원칙은 민족대단결을 대신하여 민족의 일치로 바뀌게 된 것은 민족의 일치를 체제의 문제로 해석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통일 이념으로 삼았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는 김영삼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서 과거와는 달리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강조가 계속 되는 데서 알 수 있다.



김영삼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발표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자유민주주의를 기조로 한 3단계 3원칙의 통일방안이다. 3단계는 기존의 3단계 3원칙의 통일방안과 차이가 있다. 1단계는 화해협력의 단계, 2단계는 남북연합, 3단계는 1민족 1국가의 통일단계이다. 3단계 3원칙 통일방안과 가장 큰 차이는 3원칙을 삭제하고 3원칙으로 대체했다는 것이다. 3원칙은 국민적 합의, 공존공영, 민족독립이다.

### 관계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조치들

북한과 미국 사이에 경수로 노획 선장이 쉽게 합의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남북관계는 통일지향적인 관계로 쉽게 전환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데올로기적인 요인으로 냉전 반박의식을 들 수 있다. 남한의 반공의식은 명백히 반북대결구조 속에서 형성되었다. 정부는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는 공존공영이라는 방식의 통일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바 한국전쟁 이후 뿌리 내린 반공의식은 여전히 강력하게 국민들의 의식에 자리잡고 있다. 그러한 의식은 위정자들이 남북대단결을 민족의 비극을 정권안보의 차원에서 활용함으로써 더욱 강렬해진 것이었다. 따라서 남북기본합의서의 제 1항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남북한의 화해와 신뢰구축은 국가형태의 조립으로써 또는 통일·체제통일으로써 통일 아닌 진정한 민족공동체의 건설이라는 측면에서 시급히 실현해야 할 문제이다. 그리고 남북한의 권위자 대결은 분단체제를 유지시킨 정치적 요인이다. 남북한 1백 50년의 장년들이 휴전선을 중심으로 하여 적

대적으로 대결하고 있고, 위정권 권위자를 기층과 상층으로 상하로 분할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남북한의 권위자 대결의 해소는 평화통일이란 것을 할 수 없다. 또한 군사대결의 해소 없는 경제협력의 모색과 더불어는 커다란 할 수 없다. 남북한의 군사대결을 해소하기 위한 공존공영은 등의 중요성을 마르 여가야 비롯된다. 남북한의 군사대결을 해소하는 남북공존공영은 체제 통일의 의미와 같다. 남북한의 군사신뢰구축과 공존을 추구할 수만 할 것이다.

### 김창수 (평화연구소 연구원)

- 1. 올해가 왜 민족사적 대전환기인가?
- 2. 올해 정세가 왜 통일에 유리한 정세인가?
- 3. 올해 남북관계가 진전되는 진전의되는가?

## 통일원년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③-통일방안 정립



### 7천만이 합의할 수 있는 통일국가의 상

로 해야 한다는 견해와 북한을 단계로 두지 말고 단번에 이루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면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경우 '국가연합-민족 1체제'란 2단계, 김영삼 정부의 경우 '화해협력단기-국가연합단계-민족 1체제'의 3단계를 두고 있다. 복잡한 단계를 두지않자는 견해는 여러 단계를 줄 경우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강태성이 잘 마련되지 않아 초기단계에서 통일이 무관정 지연될 수 있는 함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합의하면 바로 통일로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이어야 반통일세력의 의해 통일이 지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통일국가의 상을 놓고는 '1국가 1체제 방안'과 '1국가 2체제 방안'이 있다. 전자의 경우

는 결국 한쪽이 다른 쪽을 흡수하는 흡수통일방안이며 후자는 반세기 간 다른 체제에서 살아온 현실을 인정하고 통일국가를 세워야 한다는 연방제 방안으로 본다. 전자의 견해는 물론 서로가 서로의 체제를 무너트려야 하기 때문에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대화하는 데가 없게 된다. 또한 이는 한 체제로 통일된다 해도 상당한 혼란! 통일비용과 노동민족의 분열에 직면하게 된다! 이 때 어떤 변혁적 민족의 반란과 민중으로 비화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반면 1국가 2체제 통일방안은 경우 하나의 체제를 존중한다! 분할없이 대의를 통해 보일을 합의할 수 있으며 급격한 통일으로부터 오는 혼란을 최대한 점진적으로 완화한다! 단 한 번의 통일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연방제 방식이란 미국-영국-러시아-독일의 경험에서 보듯 영토가 크고나 민족이거나 지역적 특색을 강하게 나타내 민족정체성을 존중하면서 단일국가를 세울 수 있는 보편적 정치형태이다. 따라서 단일 민족처럼 두 지어의 제도적인 차이가 큰 경우 단

일한 체제로는 결코 통일을 실현할 수 없으며 두 지어는 자치정부를 두는 연방국가를 세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다. 이상을 통해 우리의 통일방안은 우선 흡수통일을 반대하고 두 지어의 체제의 차이를 인정할 연방제 방안이 공평하다! 그리고 남북의 통일할 수 있다! 또한 통일방안도 통일방안이라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남북의 통일은 남북의 통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북의 통일을 위한 것이다! 남북의 통일은 남북의 통일을 위한 것이다! 남북의 통일은 남북의 통일을 위한 것이다!

오성기 (전국연합 자주통일위원회 간사)

선경의 세계화 전략은 수백억 추구입니다

그 나라에 가서는 그 나라 사람이 되십시오. 언어도, 생각도...

폐쇄적 여기입니다. 인도인 비즈니스 상대를 만난 자리에서 누군가 잘 대접하겠다는 생각이 최고 스테이크를 식사메뉴에 올린 적이 있었는데, 소를 수상으로 여기는 인도인에게는 이만저만 경례가 아니었지요. 물론 요즘의 우리는 이런 실수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사고가 부족하고, 언어마저 뒤떨어진다면 안심하고 세계를 활동무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계인이 되십시오. 저마다의 수백억을 추구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노력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을 추구한다면 얼마 후 세계무대가 여러분의 앞마당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SUPEX IS... 세계인이 무한정 추구하는 글로벌라이징 시대에서 확실한 경쟁우위를 시키기 위한 특유의 경영철학으로, 지금의 세계경영 기법들이 앞으로 도모할 수 있는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 즉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SUPHR EXCELLENT LEVEL)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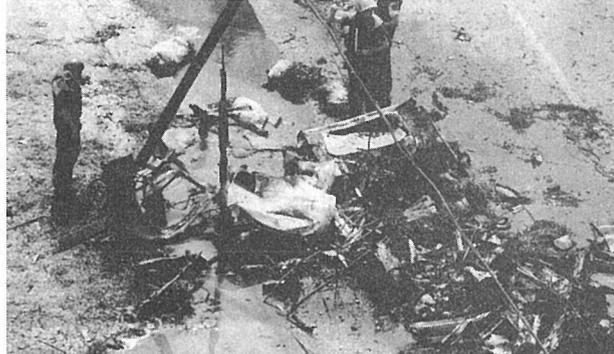
SUNKYONG 鮮京그룹

□ 세계를 진단한다: 전세계의 민족분쟁 ④ - 종교로 인한 동남아시아의 민족분쟁

# 식민 지배로 그치지 않는 '문명충돌'

양승운  
(본교 마인어과 교수)

지구 전체적으로는 탈냉전이라는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리고 더불어 과거 냉전으로 덮여 있던 민족간의 분쟁을 위시한 제반 문제들이 다시 전면화 되고 있다. 과거 세계대전 이전에 각 나라들끼리 강하게 지배했던 민족주의들이 이제는 탈냉전 시대에 각 나라들이 살아남기 위한 도구로 다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국경없는 이러한 민족주의의 대두와 그것이 앞으로 세계사에 미친 영향, 민족주의의 차이에 대한 연구들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남북 분단과 미국 일본 중립이라는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얽매며 그동안 제자리를 옮겨와 왔다가 있고 있지 못하고 있는 우리 민족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사회부는 전세계적인 민족분쟁을 짚어주며, 그 민족들간의 대립 원인을 명확히 규명해주고 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민족주의의 근거에 따른 민족분쟁을 총체적으로 짚어줌으로써 통일이라는 과제를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 민족의 나아갈 길을 간접적으로나마 알려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의 민족분쟁에 대한 총체적인 진단과 시사점을 마무리하며 또한 이루어질 것이다.



다중종교·다종교·다언어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동남아 지역의 민족분쟁은 여러가지 요인이 있었으나, 가장 큰 것은 종교문제라 할 수 있다. 이 지역에는 불교와 이슬람교, 기독교 등 많은 종교들이 혼재되어 있어 그에 따른 분쟁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사진은 회교도들에 의해 버스가 폭파된 장면이다. (사진:뉴스위크)

## 동남아 10개국 모두 문화·종교적 충돌 몸살 앓아 종교적 갈등, 선의의 국가간 경쟁으로 승화돼야

### 동남아시아 지역의 갈등요인

헨링턴(S. Huntington) 교수의 '문명충돌론'은 미·소 양극체제의 하의 이데올로기 경쟁을 막 끝낸 지구촌에 목격한 충돌을 인종구조, 역사적 배경에 관련된 수많은 논쟁을 야기시켰다. 이 논쟁의 주 요지는 종교전쟁이나 혹은 경제전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세계 도처에서 최첨단 전쟁수단을 동원한 종교전쟁이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고, 국가 간 충돌은 다양한 형태의 블록 간의 무력전쟁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냉전체제 하의 동남아는 어떤 의미에서 지난 수세기 동안 지배세력으로 군림했던 서구 열강들에 의한 식민통치의 연장이었다고 해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이로 인해서 대부분의 동남아 약소국들은 2차세계대전 이후의 국제정치 체제와 경제 발전에 의해 만들어진 국가적·사회적 상황이 국내의 정치·경제의 발전에 따른 급격한 변화 속에서 선진국에 뒤처져 왔다. 그러므로 다종교(多宗敎)·다종교(多宗敎)·다언어(多言敎)를 바탕

으로 하고 있는 이 지역의 복합민족 국가들이 안고 있는 갈등요인들이 위와 같은 형태의 현상유지 구조 속에서 변화되어 오게 되면서 종교적 갈등에 따라 오히려 증대되거나 미묘한 양상으로 세분화되었음이 도처에서 관찰되고 있다.

### 탈냉전과 동남아시아의 전망

문명충돌론과 관련하여 냉전체제의 종식은 동남아·사회에 두가지 가능성을 보다 확연하게 제시하였다. 하나는 복합민족 국가의 갈등이 첨예화되어 오게 되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지역이 경제전쟁의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흔히 다양성(多様性)으로 표현되는 동남아의 복합민족 사회가 필연적으로 문화·종교적 갈등을 겪게 될 것이다. 이 갈등은 선의의 국가간 경쟁(경제전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면 동남아 지역은 가까운 장래에 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냉전체제 하에서 국제

경제는 어떤 의미에서는 기술과 자본이 쌍두마차의 두 수레바퀴였다. 그러나 이제는 자본과 시장경제와 질의 저렴한 노동력이 기술과 자본에 못지않은 중요한 경제성장요소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들 다섯가지 요소에 대한 가장 큰 가능성을 가지고 동남아가 부상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 이슬람과 카톨릭의 갈등

이슬람은 불교와 카톨릭과 함께 동남아의 주요 종교의 하나이다. 동남아 10개국 인구가 4억 4천만 명이

추산되는데, 이슬람은 불교 문화가 만개(滿開)한 이후에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다양한 종족에 따라 전통적 문화의 정도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타 종교와 역사를 통하여 많은 갈등을 경험하였다. 필리핀의 경우, 민다나오와 사바하 사이에 위치한 술루섬에서 크게 발달하였다. 이슬람 술탄국에 의한 이슬람화가 필리핀의 전 도처에서 상당히 진척된 이후에 이 지역의 식민통치 세력으로 등장한 스페인이 무력으로 이슬람을 무력화하고 카톨릭화를 이룩하였다. 1백년 전쟁을 겪은 후, 인다나오는 중남부를 정복하여 북부의 카톨릭과 남부의 이슬람으로 나뉘었다. 16개 중족으로 구성된 이슬람 모로인들은 스페인과 미국의 식민통치에 항쟁하면서, 마르코 수석대령관에 저항하면서, 그들은 독자적인 정부를 주장하기도 하였고 또 다른 경우는 이슬람 지역의 고유한 관습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들에 의한 무장투쟁은 대(對) 필리핀 정부적 성격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세계의 이슬람 사회

### □ 통일시대를 맞이하는 통일방안대토론회

##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통일의 좌표

### 고민의 지점; 통일의 성격규정과 체제논의 선후차 문제 등

동국대학교 총학생회가 해방 50주년을 맞아 '통일운동의 실질적 목표를 제기한다'는 취지 아래 지난 23일(화) 오후 4시 동국대 학림관 소강당에서 통일시대를 맞이하는 "통일방안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강정구(동국대 사회학)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방정환을 맡은 기독교사회과학연구원원의 이선태 선임연구원을 비롯 제3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집행총 의장 등 6명의 토론자가 참가했다. 본회는 이날 토론회의 발제·토론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고자 한다.

회해를 먼저 이루자는 것이 특장으로 위의 두 방안과는 달리 단계가 설정돼 있지 않다. 이러한 통일방안의 비교 속에서 올바른 통일방안과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고민이 도출될 수 있는데 이날 토론회에서는 세가지가 제기, 논의됐다.

먼저 "분단은 미국을 비롯한 외세의 제국주의적 수단 정책에 기인했기 때문에 통일은 그중 자체가 계급적인 문제가 아닌 전민족적 문제"임에도 정부와 김대중총리의 통일방안은 민족자주보다 자유민주를 더 강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외세의 간섭을 쉽게 허용할 수 밖에 없는데 특히 김대중총리의 통일방안은 4대강국에 의한 평화보장안을 제시함으로써 민족주체의 원리보다는 외세에 의해 평화·통일을 보장받으려는 우를 범하고 있다.

또 남한측의 통일방안은 '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를 제창하고 있는데, 남북이 서로의 체제에 대해 공개 포기하며 하지않는 상황에서 이는 통일실현 자체를 매우 어렵게 할 뿐 아니라 민족의 대립과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소지가 있다.

그러나 대립의 원인이 철저하게 경계되는 것이어야 한다.

이렇듯 통일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통일의 3대 원칙의 경계 외에도 통일의 성격과 체제의 선후차 문제, 시기를 비롯한 속도 문제 등도 함께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이 방안은 체제의 문제는 후대에 맡기고 민족

통일운동의 변방만 이정표로 세워주고 남북 복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 보초를 같이해 나갈 수 있는 실천적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통일을 위해 선지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때문에 올바른 통일방안은 '집단·국가적 이익을 보장해 줄 뿐 아니라 남북의 이익을 동등하게 반영하고 7천만 겨레가 모두 인정하는 것'이어야 하고 자주·평화·민주·민족단결의 원칙이 철저하게 경계되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에 이러한 체제논의는 후대에 맡기고 두차례의 정쟁을 통해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체제를 설정해야 함에도 정부측과 김대중총리의 통일방안은 통일을 체제론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대립의 원인이 철저하게 경계되는 것이어야 한다.

정권교체와 단계론도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통일이 급하게 되면 혼란이 초래될까 우려하는 심정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이 실현되면 혼란이 심해질 수 있는 위기는 매우 큰 것이다.

이렇듯 통일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통일의 3대 원칙의 경계 외에도 통일의 성격과 체제의 선후차 문제, 시기를 비롯한 속도 문제 등도 함께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이 방안은 체제의 문제는 후대에 맡기고 민족

### □ 통일시대를 맞이하는 통일방안대토론회

## 이슬람과 불교의 갈등

태국은 여타의 동남아 국가와 달리 불교(불교)의 지상주의와 왕실의 권위가 오랜 역사를 통하여 굳건하게 지켜온 특색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불교를 국교로 하고 있으면서도 타 종교에 대하여도 관대한 융화정책을 실시하고 있어서 종교문화의 갈등이 가장 적은 나라이다. 태국 남부의 말레이 반도 북부를 위한 램타니 등 5개 현은 전통적으로 강력한 이슬람 신봉지역으로 알려지고 있다. 태국 정부는 '람타니'를 통하여 이들 이슬람 교도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보존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적 배려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궁극적으로 주장하는 정교정치와 이슬람법에 의해 지배되는 신법 통치국가에 대한 요구는 태국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외적 상황 변화에 따라 언제라도 새로운 움직임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Limmah)에 대하여 관심유도의 성격도 있어서 말라카 정부의 군사작전과 함께 근접한 회유와 유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종식되지 않고 있다.

모로인들의 경우와는 다르다. 인도네시아의 보고에서 개화된 제 2차 APEC 정상회담 때 세계인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동 티모르 사태'도 포르투갈 정부가 70년에 걸쳐서 해의 식민지의 자결권 존중을 발표한 이후에 표출된 인도네시아의 이슬람과 티모르인들의 카톨릭이 충돌하여 벌어진 것이다.

### 불교와 기독교의 갈등

현재 인도네시아를 모방하여 군부의 이종기능(정치적 기능과 국방의 기능)을 골자로서 한 신법론 초안을 끝내놓고 있는 바(미안마)는 1948년 우 누(U Nu)수상이 집권하여 적극적인 불교 우대정책을 취하면서 불교와 기독교 간의 대립과 갈등이 시작되었다. 전체 인구의 30%를 상회하는 카톨릭 등 비미의 기독교도들은 우 누의 불교 우대정책이 독립 이전의 전제군주 체제로 회귀하려는

### □ 통일시대를 맞이하는 통일방안대토론회

## 학술 단신

### 외곽엔 지자체 대토론회 현 지자체의 문제점 고찰

본교 대학원 외대학술연구원(외학연)은 오는 8일(목) 오후 4시 대학원 소강당에서 '한국 민주주의와 지자체'라는 주제로 지자체 대표문화의 지자체에 대한 관심을 확보하고 현 지자체의 총체적인 문제점들을 짚어줌으로써 우리나라 지방정부가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고자 이번 토론회를 기획했다. 이 정의(본교 정의과)교수와 사회학전공(서울대 정치학과)교수의 기조발제를 이어 김인철(현교 정의과)교수와 민주주의민족통일연구원 교수의 이인영(사) 토론을 진행하게 된다.

## 진실의 궤가 피어나는 곳.

전쟁터의 극한 상황, 생명이 끊어지기까지 수많은 카메라맨들이 담으려한 것은 오직하나, 인류의 진실이었습니다.

그 진실의 영상, 뜨거운 프로빙션...

이제, 눈앞에 닥쳐오는 다큐멘터리 제작이 시작됩니다.

영광과 신념이 한 제인기회의 영상 전문가들이 펼쳐가는 진실의 본.

생생한 삶의 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

### 제1회 Q채널 다큐멘터리영상제

- 행사일정
  - 출품 마감: 1996년 1월 20일(목) • 수상발표회: 1996년 2월 16일(금)
  - (출품양부 96년 2월 16일 개제 예정)
- 출품부문
  - 프리시퀀스 부문으로 한 다큐멘터리
  - 형식(다큐영화, 다큐드라마, 실험 다큐멘터리) 및 주제(자유인물, 역사, 문화, 탐험, 기타) 자유
  - 신작은 자유
- 출품장식
  - 비디오 길이 16mm 또는 35mm(최종으로 한정된 30분 내외의 다큐멘터리)
  - 타공본제 수상작은 2회
- 시상내역
  - 최우수작품상 - 장려금 1,000만원 / 우수작품상 - 장려금 500만원
  - 심사위원 특별상 - 장려금 300만원 / 예 공평상 - 장려금 300만원
  - 특별상 - 작가상 - 장려금 100만원
  - 작품으로 인정 수상
  - 수상식은 96년 3월 이후 Q 채널을 통해 방송
- 참가신청서 교부 및 문의
  - 다큐멘터리영상제 사무국(Q채널 편집부 317-8137, 8147)

**Q Channel 25**  
(주) 제일기획

□ 유럽의 미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유지음 가이드'

# 배낭여행자를 위한 유럽미술여행 가이드 선보여

## 본교 동문 여행전문가 김지현씨가 출간

배낭을 지고 유럽을 가면 반드시 둘러야 할 곳이 있다. 바로 미술관 그곳이다. 미술에 대한 사전 지식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 배낭 여행자들은 그저 그곳에 가보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미술관 앞에서 사진도 찍고 디카 이펙트도 구경하고 나오면 내가 과연 무엇을 봤는지 한숨을 쉬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이번에 본교 졸업생이자 해외 여행 동아리 외대배낭의 캠프캡틴 김지현(서양·서언어 86·94년졸업)씨가 쓴 유지음 가이드(MUSEUM GUIDE)가 출간됐다. 배낭여행을 가면 반드시 가 봐야 하는 미술관을 주시안식으로 소개하고 있는 이 책은 배낭여행을 위해 이 책을 펴냈다고 한다.

"우리는 흔히 미술관이란 생각만 하면 웅장하고 화려한 건축물이라 생각하게 되고, 그러나 미술은 결코 수단이 아닌 목적이자 그 자체이다"라며 미술이 특정계층의 소유물처럼 취급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제나 미술은 어렵고 고집스러운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이제 대중층이 배낭여행할 때 미술에 대해 더 쉽게 접근할



이 책은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6대 미술관과 미술관의 위치, 요금 등의 미술관 개황과 미술관 소사나, 미술 감상법, 미술관 배치도, 미술사 등 미술에 관한 전반적인 모든 것을 담고 있다.

수 있게 상세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 책은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6대 미술관에 대해서 상세한 한 박물관도 수천권이 정리되어 있는 그림을 모두 다 보여주고 욕망을 버린다. 그러나 잘 알지도 못하는 그림을 다 보고 나면 다리는 아프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좋은 작품을 미리 선정해서 알차게 감상하는 것이 진정한 그림을 보는 방법입니다"라며 많은 작품만을 보면 좋은

것이 있다는 사람들을 비관했다. 이 책은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6대 미술관에 대해서 상세한 한 박물관도 수천권이 정리되어 있는 그림을 모두 다 보여주고 욕망을 버린다. 그러나 잘 알지도 못하는 그림을 다 보고 나면 다리는 아프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좋은 작품을 미리 선정해서 알차게 감상하는 것이 진정한 그림을 보는 방법입니다"라며 많은 작품만을 보면 좋은

볼 수 있는 바티칸 미술관의 주요 그림들을 자세한 설명과 함께 소개하고 있다. 또한 미술관의 위치, 요금 등의 미술관 개황과 미술관 배치도, 미술사 등 미술에 관한 전반적인 모든 것을 모두 담고 있다. "배낭여행을 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었습니다.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도 해외에 부끄럽지 않을 미술가이드 하나쯤은 만들

고 싶었습니다. 저자를 무릅쓰고 가격도 낮게 책정했구요."라며 배낭여행을 하는 학생들에게 저가로 책을 공급하고 싶었다고 말한다.

"이 해 미술관들의 그림들을 보면 사암의 정선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상만을 그리고자 했던 그림의 변질에 비해 동양화의 이미지 추상화 모습에 동양화의 우월함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배낭여행만 5년째 30여편 이상의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여행과 김지현씨는 다가오는 여름방학을 맞아 배낭여행을 떠나는 외대인들에게 말하길 "장기간의 여행계획을 잡는 것은 무리입니다. 또한 여행계획은 6개월 전부터 미리 하고요. 한 나라를 보더라도 심도 있고 자세하게 보려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당부했다.

앞으로 각 미술관리드와 건축리드도 계획하고 있다는 김지현씨는 해외를 여행하는 사람들이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알차게 여행하는 데에 큰 나리사랑하는 의미라는 해외의 나라면 모두 애국자가 된다는 말을 강조했다. 자신도 이제는 너무 자주 해외에 나가기 보니까 애국자가 되었다며 펄펄웃음을 지었다.

(유경철 기자)

□ 외대안 여학생들이 움직이고 있다

# 여학생들의 정체성을 찾기위한 소모임을 생겨나고 있어

대학사회라는 곳은 그나마 어떤 사회보다 여자가 남자와 거의 평등하게 대우받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렇다면 대학교에서 과연 여성은 차별을 받고 있지 않겠는가? 소의를 받지 않겠는가?

대학에서의 여학생의 모습은 상당히 개방적이고 진취적이고 당당한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상황속에서도 보이지 않게 소외되고 있다. 특히 여학생이 적은 학과에서는 그 경향이 더욱 심각하다. 여학생이 적은 과의 여학생들은 새내기때에는 남다른 관심의 대상이 된다. 선배들도 잘 챙겨주고 동기들도 아껴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여학생들은 소외의 대상이 된다. 학과에서조차 대접받지 않고 문체간이나 하는 총무등의 역할만을 하고만 다. 보이지 않게 여학생들은 학과 학생회에만 보조적인 역할만 하게 된다. 모교의 경우는 인제나 교회에 맡겨진 '장기전의 여행계획'을 잡는 것은 무리입니다. 또한 여행계획은 6개월 전부터 미리 하고요. 한 나라를 보더라도 심도 있고 자세하게 보려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당부했다.

영인캠퍼스의 경우는 총학생회에서 여학생들의 올바른 의식을 위해 여학생 소모임을 결성하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지금 원성이 있는 여학생 모임은 뉴욕어과와 '로소로(무소로) 동아리'와 '환영회'의 '에프(FF.M)' 철학과와 '소스(소스)의 의미' '아이스(아이스)의 의미'와 '여성의 소모임'이다. 또한 소수의 여학생들이 존재하는 과에서는 과내에서 여학생들 수 2개까지 정식 발족식을 준비하고 있다. 신생과 대부분이고 또한 여대도 적기때문에 이모임에 과내 여학생 대부분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다.

이 모임의 주체 이선영(자연·환경4)은 "여학생의 수가 너무나 적기때문에 여학생들이 소외되고 쉽습니다. 여학생들이 모여서 같이 여학생 공부하고 하고 자신을 올바른 자태를 꾸리기 위해 이 모임을 만들게 됐습니다"라고 말한다.

이들은 주로 책이나 비디오 등의 여학생 자료를 같이 공부하면서 여학생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고민들

을 풀어나가고 여성이 스스로 사야 하는 자리를 생략해 보는 자리를 갖는다고 한다. "여학생들이 과 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여학생이 소외되지 않는 방법입니다"라고 유요과와 '로소로'고집이 강한 말한다.

서울캠퍼스의 경우 영인캠퍼스와 달리 있는 여학생모임이 자생적으로 생겨난 경우가 많다. 영어과와 신방과 그리고 정책학과에 여학생모임이 있고 여학생위원회에서 '외학인모임'이라는 여성모임을 만들었다. 이 모임들이 여학생위원회를 중심으로 모인 모임들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학내 여학생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들의 생활적인 것들을 찾기 위해 여학생을 공부하고 그동안의 경험을 같이 공감하고 있다. 물론 다른 의견도 있다. 여학생들이 적은 학과나 상과의 경우는 친목같은 형식으로 여학생들이 모이고 있다. 그러나 이듬해 몇몇 여학생들은 남자들이 많다고 해서 여학생들이 소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 생각들이 오히려 여학생들에게 더 위험한 생각이라고 비판한다. 남자들이 많기때문에 남성중심문화에 인정받고 나름대로의 여성이 해야 할 일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는 여학생들도 있다.

"여학생들의 올바른 여성관을 위해 모임을 하나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2학기 서울캠퍼스에서 총학생위원회의 출범을 준비하는 여학생위원회장 하나음(서양·불어4)은 말한다.

외대안에 있는 많은 여학생들은 많은 일에서 고립된 경우도 있다. 스스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침묵부리기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

"단순히 여학생들의 목소리를 크게 내라는 의도가 아니다. 여학생들의 생활적인 면에서 그들의 모습을 솔직하게 바라보는 것이 여학생 소모임의 주목적입니다."라고 영인캠퍼스 총학생회장은 같은 육(사회·경제4)의 말이 상징적으로 여학생모임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유경철 기자)

# 평수당

# 사제가 갖춰야 할 주도(酒道)

나는 가끔 모퉁이에 남아 밤 늦게까지 학생들과 술 마시기를 좋아한다. 석양이 붉게 물들어 가는 시간에 평수당 옆에 앉아 잔을 주고 받는 기분은 더 없이 좋다. 대학이 풀기는 중간 중간에 물고기들이 수면에 입을 대고 내는 비광에는 소리나. 숲 속 새가 보금자리를 찾아 지저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면 차갑게 내리는 찬 이슬마저도 포근하게 느껴진다. 허기가 올라 명정의 새벽로 조금씩 빠져 들 때면 어렵고 힘들던 시절 한때 잊혀 버린 옛 기억을 북돋아 준다. 그러나 나는 학생들에게 나와 술을 같이 할 때 꼭 지켜 주어야 할 세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첫째, 선생보다 먼저 취하지 말것. 둘째, 취한 듯한 친구가 있으면 빨리 데리고 나갈 것. 셋째, 술자리가 있던 일을 나중에 화제로 삼지 말 것. 이 세가지 원칙은 비단 선생과 학생들 사이에서만 필요한 원칙이 아니라 어느 술자리든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다.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술자리는 한바탕로 개판이 되기 쉽다. 이 외에도 내가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원칙이 하나 더 있다. 선생과 술민저 하고 싶으면 학생들이 항상 먼저 자리를 마련해 놓고 선생을 모셔야 한다는 것이다. 버르장머리 없이 술을 함께 먹고 선생에게 술값을 치르려는 두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물론 기분이 난 선생이 2개를 내라고 하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첫 술

리안만큼 어디까지나 학생들이 선생을 모시는 지리가 되어야 한다.



유 제 원 (언어학과 교수)

이것이 내가 우리 어른들로부터 배운 주도요. 또 학생들에게 가르쳐 전해 주어야 할 예방과도 생각한다. 사제제에 대해 화가 단원들이 가고 세대간의 가치관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이 시

대에 올바른 술자리 예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일단 술자리가 시작되면 그 자리는 스스럼없는 만남의 장이 돼야 한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선생을 어려워하느라 딱딱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 수업 시간에 할 수 없었던 질문이나 자신의 솔직한 의견, 안의 있는 농담이나 예고 이런 불평 등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지리가 돼야 한다.

이제는 나와 학생들과의 이런 만남도 제법 연륜이 쌓여 정제되어 가고 있다. 이번 학기에오 중간 시험이 끝나고 나서 날을 잡아 평수당에 모여 술자리를 벌이고 그 날 우리 대학의 주제는 2세기였다. 이제 5년도 채 남지 않은 2세기는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지난 10년간의 변화보다는 앞으로 5년의 변화가 훨씬 더할 것이고 1999년 12월

31일과 2000년 1월 1일 사이의 변화는 우리 세대의 그 어느날 보더라도 볼 것이다. 생애의 생애의 대부분을 2세기에 보내야 하는 세대로서 학생들은 앞으로 5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밤 늦도록 이런 대화를 계속했다. 그 어느 시대보다도 많은 전문화된 지식과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요구할 2세기를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역시 공부라는 평범한 진리를 우리는 밤새 떠올렸다. 또 한 번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추억의 밤을 만든 것이다. 그 날 나는 행복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이제 철관을 마주 보고 산 세월보다 철관을 돌고 산 세월이 더 긴 나이가 되었다. 요즘 들어 부쩍 수업 시간에 나를 바라보는 학생들의 눈초리가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내가 잠깐 귀한 것은 영혼을 잃고 가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과 스스럼없이 만나 소주잔을 기울이며 밤새 대화를 하고 싶어진다.

# 생활시평

# 실천속에서 주인공 자세를 가져야

화려하게 시작된 대학은 그 끝도 화려(?)했다. 26일(금) 막을 내린 서울캠퍼스의 경우 주점이 상인 잔디밭이나 숲을 만든 노천 등 곳곳에 그 흔적이 너무도 선명하게 남아있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내가 무슨 말이든 지우지 말라지 않았다. 이것이 당시 너무도 솔직한 정신이 없었다는 변명으로 이해되고 덮여주는 문장은 아닐 것이다.

고등학교까지 우리는 선생님의 지도하에 생활했다. 우리는 이러한 교육은 우리의 주체성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공공연히 제도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그림을 인간의 주체성은 인정되고 보편화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주체성을 바로 나의 생활속에서는 잊고있고 보편화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주체성을 바로 나의 생활속에서는 잊고 살아온 것은 아닌가 한다. 우리들의 생

활을 되돌아 보자. 강의실에 앉아 수업 듣고,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정학만 고 있어 내 목적으로 움직이는 정수는 언제때도 달라질 수 없고 나는 어디에도 책임감을 느끼지 못했다. 당연히 철수는 나의 아저씨들의 뜻이 되어버린 것이다.

한편 무엇보다 우리의 반성을 요구하는 것은 5·18 진상규명 사진전시회의 뒷이야기 아니었나. 그 중요성은 어느 누구도 모르고 잘 알고 있고 그 진지함을 우리는 느꼈다. 그런데 대충대충 이후년부터 전 시관련의 모습은 우리 자신에게 흡사함을 느끼게 한다. 생활속에서 처부해 버리는 하나 하나의 일들이 우리의 주인공 자세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인공의 권리는 바로 우리의 실천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수미 기자)

# POSCO메세지 동감편

**어때요? 한번쯤 NG를 내보는 것도!**

책상에 앉아 공부만 하는 모범생에 머무른다면 진정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방학, 짜여진 강의료도 없고 기한이 정해진 레포트도 없습니다. NG를 내도 좋고 시행착오를 겪어도 좋습니다. 캠퍼스 밖으로 나가십시오.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떠남시다!

"머리가 아닌 몸으로 -" "말이 아닌 행동으로 -" 여름방학동안 탐험리더 얻은 잊지 못할 산경험들은 젊음의 참가치를 인생의 참뜻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또 다른 세상의 환복판으로 뛰어나가 많은 이를 만나, 많이 보고, 많이 알고,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이것이 방학입니다.

국민의 기업, 우리의 기업 -  
**포항제철**

□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 흥세화씨

# “꼬레의 시골길을 다리가 아프도록 마냥 걷고 싶습니다”

## 빠리의 망명객 흥세화씨



이 사람이 갈 수 있는 나라는 '모든 나라'이고 갈 수 없는 나라는 '꼬레'이다. 그의 말처럼 '고양이 있으면서 동시에 없으며 고양이 있으면서 동시에 없다'라는 꼬레의 특이한 문화를 소개하고 있다. 빠리의 택시운전사 10년간 '에프랑제(이방인)'로 살아오고 있다. 빠리의 택시 운전사로 친근한 흥세화씨. 국제전화로 만난 그는 프랑스의 '텔레라스'를 이해하는 빠리의 이방인듯 했다. 그는 이제 직업상 '빠리의 택시운전사'가 아니다. 반나절만 일해도 예전보다 발이 가벼워 나온 지자 인 회사 '프랑스프리즈' 빠리 지사에 프랑스 행정 도움을 주고 있다. 나머지 반나절은 책을 보며 지낸다 고 한다.

"많이 걸어도 좋고 싶어요. 다리가 아파 걸을 수 없을 때까지 시골길을 마냥 걷고 싶습니다." 흥세화씨는 서울에서 빠리로 나오기 전에 서울문화방송의 시골길을 가 보지 못했다며 조국 선친의 공기를 맡았 심호흡할 수 있는 것을 그리워 했다. 만약, 만약에 한국에 올 수 있다면 말이다. 정착을 할 수 있는 상황은 구체적으로 생각할 볼 수 없었다고 한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국적'을 프랑스인으로 바꿔야만 한국땅을 걸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조국의 이름을 잃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16년을 망명민으로 살면서 16년전 한국에서 않았던 조국과 국적을 포기해야만 이 땅을 밟을 수 있는 그에게 '조국'의 의미는 어떻게 변했는지 질문을 던졌다. 그의 답답한 대답은 이런 질문이 아니라 '변화'를 느끼게 했다. "변하지 않았습디다." 이후에 덧붙인 말에 의하면 당시(70년대) 한국 사회의 모습을 느꼈고 '남조선 민족해방전선'에 가담했던 그의 특수한 상황과 어찌

그때도 못다한 이야기로 결말인 이유는 바로 한국사회가 이 '텔레라스'를 지나기를 버렸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는 "한국 사회가 원래 권력이 있는 사회였지만 분단이후 '반쪽 사회'에 의해 너무 많이 버리고 서로를 의심해야 하는 사회로 변해간 것입니다. 통일을 위해서도 '텔레라스'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라며 통일이 되면 더욱 요구된다며 덧붙였습니다.

14년 만에 프랑스 정부가 좌파에서 우파로 바뀌었지만 그 사회가 다른 사회처럼 혼란스럽지 않은 이유는 그는 바로 '텔레라스'에서 찾았다. 흥세화씨에게 전해들은 바로는 지난 93년 국회 의원 선거에서 우파가 80%를 차지했지만 당시 국회는 또 국민들에게 한바탕을 했다. "텔레라스를 가지고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이 정권이 바뀌었다 해도 작심된 국가 정책의 변화가 쉽게 일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온 대학생들이 만날 기회가 택시운전사 할 때보다 늘었다고 한다. "너무 많이 보라다 헛기! 만 보고 가는게 아니냐 우리가 됩디다. 여행자의 역사나 문화에 대한 토론과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라며 한 사회가 다른 사회를 만날 때의 준비와 열의를 말한다.

그는 앞으로도 계속 글을 쓰자 한다. 남들이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 것들, 남들이 외면하고 지나선 것들에 대해. (오미나 기자)

스 "다른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의 자유 및 다른 사람의 정치적 종교적 의견의 자유에 대한 존중"과 "특별한 상황에서 허용되는 자유"라고 밝히고 있다고 한다. 프랑스 사회의 '텔레라스'는 그의 가슴깊이 남아

스 "다른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의 자유 및 다른 사람의 정치적 종교적 의견의 자유에 대한 존중"과 "특별한 상황에서 허용되는 자유"라고 밝히고 있다고 한다. 프랑스 사회의 '텔레라스'는 그의 가슴깊이 남아

스 "다른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의 자유 및 다른 사람의 정치적 종교적 의견의 자유에 대한 존중"과 "특별한 상황에서 허용되는 자유"라고 밝히고 있다고 한다. 프랑스 사회의 '텔레라스'는 그의 가슴깊이 남아

스 "다른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의 자유 및 다른 사람의 정치적 종교적 의견의 자유에 대한 존중"과 "특별한 상황에서 허용되는 자유"라고 밝히고 있다고 한다. 프랑스 사회의 '텔레라스'는 그의 가슴깊이 남아

스 "다른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의 자유 및 다른 사람의 정치적 종교적 의견의 자유에 대한 존중"과 "특별한 상황에서 허용되는 자유"라고 밝히고 있다고 한다. 프랑스 사회의 '텔레라스'는 그의 가슴깊이 남아

# 외대인이 외대인에게 토요일 오후를 클래식 향기로

## 클래식 음악 자료실



신 왕 호 (지연-블라2, 마스터스 회원) 클래식이 다른 음악보다 친숙해 지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

"저는 클래식 음악을 듣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마치 클래식을 다른 장르보다 고상하고 우위에 있는 음악이라고 여기는 이들을 가끔 봅니다. 주위의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해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클래식을 매우 어렵고 지루한 음악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잠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클래식도 음악의 많은 장르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게다가 그것을 다른 음악과 비교하여 우열을 가리는 것은 몹시도 어리석은 일이지요.

하지만 주의깊게 살펴 보면 단편 음악들을 손쉽게 접할 기회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술의 전당'에 위치한 문화예술 진흥원 자료실을 아시나요? 아마도 국내에서 유일한 예술 자료관일 겁니다. 각종 예술 관련 서적과 공연 팸플릿, 연극 대본, 악보 외에도 총 7천여종에 달하는 음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오페라와 실용 관련 등의 비디오 자료도 상당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료의 이용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하루 2백원의 입장료로 자료를

## □극단 길라잡이의 '노래'

# 분단가족의 만남을 '노래'

"분단과 전쟁은 우리 민족의 삶에 50년 동안이나 길라잡았다. 우리를 길라잡았던 외세바람 다시 만나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하고 있는데 정작 피해 당사자인 우리 민족만 여전한들로 나누어 중요와 적대감으로 대치하고 있다. 이런 서로 분단의 벽을 깨고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할 때이다."

시사극 '노래'는 해방 이후 분단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는 역사극과 현대를 살아가는 소시민들의 삶을 그리고 있다. 그 이야기 바야흐로나스틴의 성경적인 사랑이 되던 해인 1945년 작곡가이자 바이올리니스트인 성경민과 음악가인 홍영희의 딸 현과 젊은 부모를 여고 분단의 비극

으로 인해 남과 북으로 헤어지게 된다. 남쪽에 살게된 현은 성악가로, 북쪽에 살게된 윤은 문화선전대원으로 활동한다. 각각 음악활동을 하고 있는 현과 윤은 자신들이 쌍둥이임을 알게되고 만나기 위해 여러 방법으로 선을 대지만 남북간의 경직된 정치적 상황으로 여러차례 좌절되고 만다. 그러다가 오스트리아에서 극적으로 상봉할 기회를 갖지만 50

년이라는 세월을 다른 체제 하에서 살아온 두 쌍둥이 자매는 이질적인 문화의 차이로 안타깝게 만남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 그 해 8월 15일 8·15민족통일행사에 현과 윤이 함께 부르는 노래

가 기뻐되는 것으로 그들의 만남은 이루어진다. 이렇듯 '통일'로 상징되는 그들의 만남을 줄거리의 핵심 줄기로 잡고 있는 이 연극은 주인공 현과 윤을 쌍둥이 자매로 설정하고 있다. '쌍둥이'라는 설정은 "나를 보는 물이 아니라 하나의 민족이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동일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 작품에서는 현과 윤을 두 배우가 아닌 한 사람이 맡아 두 쌍둥이 자매는 직접 하게 했다. 이처럼 작품의 중반부까지 각기 동떨어진 남북의 현과 북쪽의 윤은 비록 여배우 1인 2역의 모노드라마를 보는 듯 한 상황의 여배우 속에서 갈등하며 존중

하게 되는 것이다. 이 작품의 주제곡은 '저녁에 게'이다. 이질화된 남과 북이라는 분단체제 속에서 달리 불어날 수밖에 없는 노래를 작곡하고 남북이 공유할 수 있는 노래, 민족의 노래라는 상징으로 채택된 노래이다. 현대사를 가장 정치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노래를 취할지 구사함으로서 50년 분단의 시간동안 고착화된 남과 북 양측이 문화적·정서적 차이를 있는 그대로 무대에 올린 것은 분단의 극학을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할지를 잔잔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수미 기자)

### 우리말 속 일본말

(8) 유도리

'이해심' '여유' 등의 뜻을 가진 일본어이다. '넌 왜 그렇게 유도리가 없냐?' '자이는 유도리가 없이 알리가 꼭 막혔어' 등의 표현으로 일상 생활 속에서 자주 쓰는 이 말은 '여유' '용용성' 등의 우리말로 바꿀 수 있다. (우리말 연구회)

## 새물결 제21회 정기공연 열려

# 공허한 세계화 논리 노래극으로 풍자

노래극 새물결은 지난 5일 (월), 제21회 정기공연 '대통령 꺾 혀만 합시다'를 노천극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김영삼 문민정부의 '세계화 논리'를 노래극의 형식을 빌려 전개해 나가고 있다. 2부로 진행된 '대통령 꺾 혀만 합시다'는 '세계화 구호'의 허상을 지난 군사독재정권과 전혀 다

른게 없는 노동운동 탄압, 사고 문화, 각종 비리를 노래와 이야기로 풍자적으로 풍자했다. 이번 공연에서는 '대대민국' '부실공사' 등의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한 노래들이 '대통령 꺾 혀만 합시다'를 전개해 나갔다. 이번 공연을 연출한 김욱기(사법 학교 3)장은 세계화 논리

## □외대연극회 제21회 워크샵 공연

# 광인들을 통해 우리 사회의 황폐성 고발

외대연극회는 지난 1일 (목)부터 3일 (토)까지 제21회 워크샵 공연 '광인들의 축제' (작품 이름상, 연출 이창호)를 대강당에서 열었다. '광인들의 축제'는 전쟁을 배경으로 전쟁을 피해 온 동굴 안에서의 사건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회적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족을 버리고 피신한 사회적 명성을 가진 화평과 매영은 이 동굴에서 신세계 정신병

원을 탈출한 광인 집단을 만난다. 극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광인들에서 탈출하기 위해 배운 출신이 배영은 연극을 연출하면 이들도 그 연극속에 서 버리고 만다. 평소의 대학 충성심이 되고 싶었던 매영은 자신과 내부에 잠재해 있던 황폐성을 통해 진정한 광인이 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자신의 내적 불안을 광인

# CREATIVITY EXCELLENCE

## 학점의 천재들을 찾아라!

학교에는 없는 E학점, 그것은 특별한 수험생! 광고 엘리트집단 금강기획이 E학점의 천재들을 찾고 있습니다.

### 모집요강

- 행사내용**
  - 수요모집: 100명
  - 참가자격: 권태대학 이상의 대학재 및 대학원생
  - 참가기간: 95년 7월 27일(목)~ 7월 29일(토) 2박 3일 학습숙우
  - 참가소: 한양대학교(서울) 2호관 201호
  - 참가비용: 광고실용 및 프리젠테이션 실용
  - 참가비: 없음(숙식, 교통편, 교재 및 기념품 제공)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기간: 95년 6월 14일(월)~ 7월 7일(금) 09:00~17:00
  - 장소: 110-450 서울 중구 한남동 66-2 보현빌딩9층(중로4가 인터파크호텔 (주)광명) 11기 기호층(전공실 광고포럼(TEL. 108-2942))
- 전형방법 및 심사**
  - 신청자별은 공모서류를 제작하여 제출된 공모서류를 우수자를 대상으로 1차면
  - 심사: 가. 심사위원회는 학계 및 광고계 전문가로 위촉함 나. 전체유망자에게 대한 면접 및 본심사를 실시
- 공모요강**
  - 공모요강: 신청서 교부시 제작하여
  - 부문 및 규격:
    - TV광고: 30초용 TV-CM 소프트웨어(당일 소용량), 10정 10정
    - 신문광고: 2면(1/2면)의 1/2면의 1/2면의 1/2면
    - \*공모요강의 경우 4면(4면)에 한함
  - 공모자료: 작품발표에 후드라이너 하드디스크를 부속하여 제출
- 기타**
  - 공모요강에 준하여 수료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함
  - 공모요강을 수료한 자 중 입사 희망하는 경우 서류전형과 면접에서 특선을 부여함
  - 공모요강 후 수료자에게는 시상 및 인사위원회 차비를 부여함
  - 공모요강을 위반하여 접수, 제작하는 등에는 응모자격 상실

Creative Excellence  
**금강기획**





# 자 명 중 외 대 와 나



임 홍 순  
(직원노동조합 사무국장)

나는 1974년 12월 30일에 한국의국어대학교 고안직으로 입사하였다.  
대학을 다녀보지 못한 내가 담당하게 대학의 지원이 없다는 사실에 만족하며 상당한 긍지와 자부심으로 근무에 임하였다.  
당시의 외대 설립자인 김홍배이사장께서는 가능성의 사회학 지위를 높이 평가하고 그에 따른 근로조건인 다른 대학보다 상당히 좋은 것을 했었기 때문에 사슴없이 외대에 발을 들여놓게 된 것이다.  
나는 10여년동안 다섯 번의 총·학장님을 모시는 운전자로 근무하였다.  
맨처음 박승을 학장님을 모시면서 나는 이런 문을 모신다면 평생 운전기사만 해도 후회 없겠다는 믿을 종종 하였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분은 모시면서 존경심이란 상대반으로 하여금 스스로 우러나오게 하는 것임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새 총장님의 운전기사로 일할 때마다 나는 그분에게 맞는 기사가 되고 노력했다. 때로는 '남을 이 나이에 과장, 처장 승진을 하고 있는데...'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지만 믿음에 충실하게 사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을 하며 열심히 살았다.

지금은 부서를 달리해서 노동조합 사무국장으로서 하고 있다. 20여년의 직장생활을 하며 여러가지 일도 많았으나 지금 돌이켜 보면 나는 허비할 소리를 하는 데는 외국어대학교의 그 누구 못지 않고도 자부한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경우에 따른 일이라면 동료직원에게 필요한 일이라면 서슴치 않고 오히려 하면서 살아 왔다.  
대부분의 직장이 비숙련직인 외대에는 특이한 경향하듯 불분명한 충성심(?)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충성심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 첫째는 맹목적인 충성심이고, 두번째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줄 아는 충성심이다. 그런데 지금 외대의 충성심은 첫번째의 경우가 많이 학교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을뿐만 아니라 직원 사회를 혼탁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세계화를 부르짖는 이 시점에서 외국어대학에서도 말단직원의 권익이 왕도 언결이 함께 연구하고 검토하며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

한다. 그때만 외대의 발전이 있을 것이다. 본다.  
그리고 일부 직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마치 학교에 온 죄나 짓는 것인양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 걱정이 된다. 나는 노동조합의 사무국장지만 학교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다.  
나는 외대 학생으로서 20년 가까이 열심히 근무한 결과 2호봉을 받고 있다.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외대의 훌륭한 일꾼이라고 볼 때 모든 대우도 이에 걸맞아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2호봉부터는 사무기술자에 비하여 45%의 오차를 받고 있다. 그것도 1~2년이란 장년퇴직까지 말이다. 이렇게 비정규적인 오봉제도는 대한민국 어느 대학에도 찾아볼 수 없다.  
학교에서 만년에는 평균임금만 정상적인 호봉제도를 만들어 놓고 얼마되지 맞추어 갈 수 있다. 문제는 비정규적인 제도로 평균임금을 맞추어 갔다면 외대의 한 볼만도 함께 존재할 것이다. 현재의 노동조합이 힘이 없어 고쳐지 못하는 제도 연결은 고쳐야 할

문제가 것이다.  
나는 지금의 결과가 중요하지 않고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에 만족하며 물러갈 것이다.  
외대의 전직원이 최선을 다해 자기 임무를 다 할 때 분명 외대는 발전의 길로 갈 것이다. 단합외대라는 명분은 가지고 단일외대이 아닌 대학의 평균임금을 내세우지만 올바른 사립의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학생들에게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우리 사회의 모든 곳에서 지식인의 중심이 되어 사회를 이끌어 가고 있지만 자기 소신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윤치 저지치 보자보면 자기 주장은 어느새 뒷전이고 상사가 시키는 대로 대중을 움직이는 게 대부분이다. 그러나 지식인들의 역할이 큰 것은 지식인들의 양심의 문이 열렸을 때만이 사회가 올바르게 발전하고 직급에서 오는 여러가지 갈등이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외대 졸업생들은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젊은이로서 사회의 구주구석에 만연해 있는 불신을 종식시키고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란다.

○-본고 건물을 공사해 19년 된 독식해 온 기업이 있어 크로니즘자 그 비결을 알아본듯, 건설 실적을 올리기 위해 최고 낮은 값으로 견제에 임했기 때문에 낙찰이 됐다.  
원래지 지 1년도 채 안된 신관의 동이 급 강 이류가 책임자보다 견수를 줄이기 위한 눈에 보이기 싫은 때문이라는데,  
우리 학교가 상환기업의 건축 시험장으로 쓰인다는 후문이 사실인 듯.  
○-북한주민 아직도 배고픈 것이다?  
일마진 북한이 일본에 곡물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하자 언론사들 일제히 식량문제 해결 못한다 비판.  
곡물 하나 수입했다고 자랑만 하고 있다면 쌀부터 사다해서 수입 안 하는게 없는 우리나라는 반갑.  
제논에 대응할 수 못 본다더니, 우리나라 하는 거나 발 빠르게 비판 해야 하지 않겠는지.

건축 시험장  
○-본고 건물을 공사해 19년 된 독식해 온 기업이 있어 크로니즘자 그 비결을 알아본듯, 건설 실적을 올리기 위해 최고 낮은 값으로 견제에 임했기 때문에 낙찰이 됐다.  
원래지 지 1년도 채 안된 신관의 동이 급 강 이류가 책임자보다 견수를 줄이기 위한 눈에 보이기 싫은 때문이라는데,  
우리 학교가 상환기업의 건축 시험장으로 쓰인다는 후문이 사실인 듯.  
○-북한주민 아직도 배고픈 것이다?  
일마진 북한이 일본에 곡물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하자 언론사들 일제히 식량문제 해결 못한다 비판.  
곡물 하나 수입했다고 자랑만 하고 있다면 쌀부터 사다해서 수입 안 하는게 없는 우리나라는 반갑.  
제논에 대응할 수 못 본다더니, 우리나라 하는 거나 발 빠르게 비판 해야 하지 않겠는지.



○-법대로 하면 불법이라고...  
부수 해파리 소인이고 하니, 한국방송노동조합 소인이라고 지적하기 하는데 정부도 불법이라고 말하고 있고.  
노사분규 생길 적마다 법대로 하자고 외치지만 말도 안되는 것들이, 이제는 법 지키지 말고도 등 떠밀어,  
우리나라는 법치국가 아니었나?  
○-문민정부로 자처하는 검찰에서 아직도 고문, 폭력시대만 무한대...  
크로니즘자 알아보니 20대의 젊은 검사기 60대의 노교수인 박창희 교수를 발로차며 비인도적인 수사를 진행했다는데...  
아이! 검사장님, 당신은 예에 비도 안보고, 그렇게 버릇없이 놀다간 버릇없이 죽어...  
○-부모가 자식 밥을 굶는 다?  
양평소 총학생회장인 '갈산공개'와 '대화청년' 개입을 요구하며 총장실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는데...  
열린 총장님!  
배고픔을 감수하면서 자식들이 대학을 하겠다고 하는 이 사태에 어떻게 수습하시겠습니까?

열린 총장님  
배고픔을 감수하면서 자식들이 대학을 하겠다고 하는 이 사태에 어떻게 수습하시겠습니까?

## ● 외대발전 이계 다시 꾸자

# 어문학의 르네상스·지역학의 메카 추구

## 재정적 지원과 자체내 개혁 중요

### 서론

현재 우리대학의 지향목표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어문학의 르네상스'와 '지역학의 메카'이다. 이것은 작년 총장 선출시 안병만 총장이 내건 슬로건이자 발전목표였다. 그러나 아직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발표되지 않고 논란만 거듭하고 있다. 금년 1학기 중반에 있었던 '지역학 도입안'이 그것이다. 이러한 논쟁이 일어난 이유는 지역학의 개념과 실천방식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 대학의 공적이며 주상적 지향점은 '국제화'와 '지역화'이다.

토틀로서 필요로 된다. 이런 의미에서 '어문학의 르네상스'와 '지역학의 메카'라는 슬로건은 옳바르다. 그러나 이것은 공적 목표로서 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 외대는 '국제화'를 구현하는 특수대학으로 그 위상을 차별화해야 한다. 그리고 어문학과 지역학의 교육과 연구가 차별성을 띠도록 제도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5월 25일자 동아일보에 발표된 '국제대학'과 같은 것은 바로 우리 대학의 개혁안에 실천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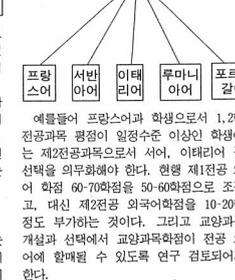
가치 창조	전공과목의 분별화 및 융합
지식 축적	1국가의 문화, 언어, 경제, 정치, 역사에 관한 체계적 지식
언어 심화	외국어 구사 능력 배양

4학년	가치창조 단계
3학년	지식축적 단계
1-2학년	언어구사 능력 배양 단계

분야별 전문과목과 긴밀히 연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러시아 경제를 공부하는 학생이 리간 경제학원론을 비롯한 전문분야 과목을 수강토록 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부전공제의 강화와전공과목의 복합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외국어 과목 간에도 상호교류 수강이 허용되어야 한다. 예를들어 러시아어 전공자는 폴란드어나 체코어를, 이탈리아 전공자는 불어나 서반어를 의무적으로 선택 수강할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공학과 제도를 학부부도 개혁할 필요가 있다.

적용해야 한다. 사실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은 교과과정의 우수성이다. 졸업시험의 엄격함이 힘입은 바가 크다. 학부과정에서는 졸업시험을 그렇게 엄격하게 시행하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졸업시험을 어떻게 엄격하게 하여 그 결과를 성적증명서에 기재토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졸업시험에 의한 수확능력 결과가 취업 등 사회진출 시 하나의 보장시험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외국어대의 졸업시험 통과자는 역시 우수하다는 정평이 확립될만한 학교에 대한 사회적 사회적 종합 평가는 급상승할 것이다.

### 로맨스어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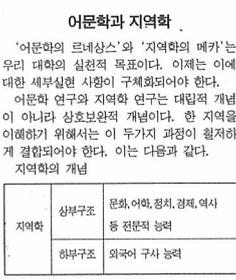
### 결론

학교발전을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이 중요하다. 그러나 내실있는 교육과 연구를 위해서는 자체내 개혁이 더 중요하다. 정부에서는 '국제대학'실상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은 바로 우리 대학의 것이 되어야 한다. 동원대학원 졸업시험 통과자에게는 바로 '전문의학의 통역사' 자격증이 주어지듯 외대 졸업시험에서 우수자는 국제수준의 전문인력으로 보충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검정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동·서양어대학의 수준이 국내 최상급의 국제수준으로 인정된다면 자연대, 인문대 등 다른 단과대학에 대한 인지도도 더불어 상승할 것이다.

### 장 덕 수 (본고 노교과 교수)

### 졸업시험 인준제

통역대학원의 운영방법의 일부를 학부에



국제화라는 개념은 세계화와 약간 다른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세계화는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원대주의적 개념이다. 즉 자신의 주관적 사고와 행동을 세계적 차원에서 객관화하고 자신과 다른 세계의 문화와 교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국제화는 세계화보다 더 포괄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화는 이미 자신을 세계화한 차원에서 한발 더 나아가 문화, 정치, 경제 등 정신적, 물질적 교류를 세계적 차원에서 주관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대학은 이미 40년 전에 '국제화'를 교육이념으로 정하고, '진리, 평화, 창조'를 교훈으로 선포한 것이다.  
어문학과 지역학은 바로 국제화의 실천적

### 국제화

국제화라는 개념은 세계화와 약간 다른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세계화는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원대주의적 개념이다. 즉 자신의 주관적 사고와 행동을 세계적 차원에서 객관화하고 자신과 다른 세계의 문화와 교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국제화는 세계화보다 더 포괄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화는 이미 자신을 세계화한 차원에서 한발 더 나아가 문화, 정치, 경제 등 정신적, 물질적 교류를 세계적 차원에서 주관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대학은 이미 40년 전에 '국제화'를 교육이념으로 정하고, '진리, 평화, 창조'를 교훈으로 선포한 것이다.  
어문학과 지역학은 바로 국제화의 실천적

지역학	상부구조	문화, 언어, 정치, 경제, 역사
	중부구조	문, 문헌, 언어
	하부구조	외국어 구사 능력

## 비둘기협판

### 이문별

안건: 30기 이하 생년확인  
동문회 활성화와 모세 OB와의 만남  
(성동고 동문회)

때: 6월 9일(금) 늦은 5시  
곳: 상정탑  
꼭 오셔야 합니다.  
(진신고 동문회)

○모집합니다  
-지구들에서 2학기중 지역학 학술제를 개최할 함께 준비할 일꾼을 모집합니다.  
동대실로 와서 신청하세요.  
(제 29대 동아리대 학생회)

-기존 활동에 함께할 분을 찾습니다.  
총 7명을 모집합니다. 961-4490로 연락하세요.  
(여학생 위원회)

○찾습니다.  
○찾습니다.

6월 1일 오후 4시에서 4시20분사이 학군단 건물 3층 강의실(심리학 개론 수)에서 다이어리를 분실했습니다.  
그안에는 의발주에서 즉발금방을 실리기 위해 일주일간 책을 판매한 돈 약 40만원과 개인 돈 5만원, 졸업한 선배님 연락처가 들어있습니다.  
꼭 찾아주세요.  
연락처: 961-4449  
015-146-8771(희철동)  
(외대법학 학생추진위원회)

○축하합니다.  
-6월에 생일을 맞은 95학년 용영이, 신희 94학년 태환이에게 진심어린 축하를 보냅니다.  
(형성학과 학우일동)

-3월에 생일을 맞은 소독수와 10일이 생일인 정현우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포어과 학우일동)

○합시다  
-제 1회 유고어과 문화유산대상기행  
때: 6월 23일(금)부터 6월 26일(월)까지  
곳: 동학혁명유적지 일대  
신청: 6월16일(금)까지

대상: 유고어과 전학우.  
(유고어과 학생회)

-1학기 중간총회가 있습니다.  
때: 6월 9일(금) 늦은 5시 30분  
곳: 교양학당 20호  
Petrovic교수 관송호에 함께 합니다.  
(유고어과 학생회)

때: 6월 8일(목) 늦은 5시 30분  
(사학파 학생회)

때: 6월 9일(금) 늦은 5시 30분  
(A·L·A)

-원어연구있습니다.  
때: 6월 7일(수)부터 8일(목)까지 늦은 6시  
곳: 도서관 3층 세미나실  
(채교어과 학생회)

-동아리 대표자 회의 있습니다.  
때: 6월 8일(목) 늦은 6시  
곳: 동원실

·1학기 마지막 직정심사가 있습니다.  
때: 6월 8일(목) 늦은 1시 20분  
곳: 학생생활 상담연구소 (학생회관 2층) 무료입니다.  
(학생생활상담연구소)

○기림합니다  
-6월 27일에 우리 아프리카어과의 용강하고 지란스런 18명의 학우가 두달간 아프리카로 문화탐방을 떠납니다.  
모두를 건강히 다녀오기를 기원합니다.  
Ninaomba safari njema!  
(아프리카어과 일동)

외대학보가 95년 1학기 중간간사 올립니다.  
발행할 보내시구요, 다음 학기에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희학 비둘기)

비둘기협판의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알리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이문·왕산 기자실로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광고료는 받지 않습니다.

이문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961-4183, 4152  
왕산 학생기자실 2층 (0335)30-4112



